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2

별책 부록 : 어린이란

2 1998

청년

앞표지 그림 :
로버트 티 배렛, 지구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뒷표지 그림 :
댄 백스터

일반

2 대관장단 메시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겠느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14 인간 아담 로버트 엘 밀렛

26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에스 마이클 윌콕스

38 전세계의 성전

40 "충실하고 선하고 덕스럽고 참된 성도들": 필리핀의 개척자들
알 레니어 브릿쉬

청소년란

8 가서 행하겠나이다 로리 리브시

24 만약에? 쉬일러 킨드레드

34 나의 전용 응급 구조단 티 숀 와이트

34쪽 참조

정기 특별 기사

1 애독자 편지

12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25 방문 교육 메시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준행함

어린이란(별책 부록)

2 친구가 친구에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4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언자에게 말씀하심
시드니 레이놀즈

5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함: 불친절한 말 니콜라 스탠지어

6 함께 나누는 시간 활동과 유의 사항

8 이야기: 5학년 슈퍼스타 클레어 미쉬커

11 심심풀이

12 몰몬경 이야기: 몰몬과 그의 가르침

어린이란,
8쪽 참조

40쪽 참조

필리핀에서의 교회 성장

38쪽 참조

유타 주의 첫번째 성전
세인트 조지 성전,
1877년

8쪽 참조

성도의 벗 1998년 2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멀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링
편집인:색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제이 이 젠슨, 존 엠 매드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트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올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탭:
관리 편집인 :데비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디앤 워커
편집 보조 :재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매리앤 마틴데일
제작 보조 :베스 데일리
디자인 스탭: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끼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디자이너 :셰리 쿡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날드 제이 크리스터슨, 데니즈 커비
구독 담당 스탭: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터슨
부장 :조이스 핸슨

통 권: 제383호, 제35권, 제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8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원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8/94 번역 승인-8/94 February, 1998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8982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14.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3223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네델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및 통가어
격월간-덴마크어,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체부어, 체코어, 피지어, 길버트어, 헝가리어, 라시아어, 타갈로그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봉사하는 기쁨

1996년 7월호 *리아호나*(스페인어판)에 실린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의 "나의 아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씀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제가 받은 새로운 부름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홀리아나 토레스 자매
스페인 엠 선교부

영을 느낌

저는 1995년 12월 20일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기 전에 저는 1995년 11월 호 리아호나(영문판)의 질의 응답 편에서 "저는 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라는 제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도 교회 모임 중에 영을 느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글에 매우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독자들의 대답과 간증을 읽고 난 뒤 나는 성찬식에서 연사들의 말씀에 더욱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고 난생 처음으로 영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모임에서 연사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합니다.

로르나 페눌리아
필리핀 바기오 스테이크
라 트리니다드 제2와드

간증을 강화함

세이또 노 미찌(일본어판)을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사셨다는 간증을 강화시켜 줍니다. 일년 전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심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 회원들이 교회 잡지를 읽는다면 더욱더 강한 간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가오리 후루가와
일본 나고야 서 스테이크
오가끼 지부

빛

리아호나(스페인어판)는 제 인생의 빛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종교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친구들과 함께 *리아호나*를 읽습니다. 1997년도 2월호에 "신앙의 유산"이란 글을 실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친구들에게 개척자들의 경험담을 나누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들 중 모두가 교회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져서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지 로페즈 히오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소야팡고 스테이크
포포틀리 지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겠느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율법사가 구세주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구세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6~39)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분께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몬슨 자매와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한 유행가가 있었는데, 그 가사는 대략 이랬습니다. "나 그대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쉬워, 나 진실될 거라고 말하기도 쉬워.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위로 증명해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느냐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요셉 스미스가 존 이 페이지 형제에게 가서 "페이지 형제님, 형제님은 캐나

구세주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보일 수 있다.

다로 선교 사업을 나가시도록 부름 받으셨습니다."라고 밀했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형제는 거절할 구실을 찾느라 애쓰며 "요셉 형제님, 저는 캐나다로 갈 수 없습니다. 입고 갈 외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페이지 형제에게 건네 주면서 "이것을 입으세요, 주님께서 형제님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페이지 형제는 캐나다로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년 동안 약 8천 킬로미터를 걸었으며, 600여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것은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존 이 페이지", 역사적인 기록, 5:572 참조)

우리 선교부에 특별히 헌신적이고 순종심이 강한 선교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장로님, 장로님은 그렇게 훌륭하게 행동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라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몬슨 부장님, 어느날 아침 저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선교사 기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를 위해 그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자, 모든 게으름이 제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발적인 의지가 의무감을 압도할 때까지 애국자로서 깃발을 따라가기 보다는 징집병처럼 싸우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보다 즐겁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없습니다."(중요한 인용문, 에머슨 로이 웨스트 편[1968년], 38쪽)

결국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쳐 봉사해야만 합니다.

저는 허례 허식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그 조용한 자세를 자주 생각합니다. 그 분은 구세주의 참된 영으로 봉사하셨고, 수없이 왼손이 한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봉사하는 일 모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필요한 일이면 어떠한 노력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한 초기 개척자의 부인이었던 어느 친절한 여인에 대한 기사를 생각해 봅니다. 그 분의 이름은 캐더린 커티스 스펜서입니다. 그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고등 교육을 받은 올슨 스펜서라는 분과 결혼했습니다. 캐더린은 보스턴에서 자라면서 교양을 쌓았고 세련미를 갖추었습니다. 그녀는 여섯 자녀를 두었습니다. 가족이 강제로 나부에서 쫓겨난 뒤, 악천후와 고생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스펜서 장로는 처가에 편지를 보내 서부에 집을 지을 동안 아내가 친정으로 가서 지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장인 장모는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딸 아이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신앙을 버리게만 하면, 돌아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돌아올 수 없네."

스펜서 자매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의 편지 내용을 들은 그녀는 남편에게 성경을 가져와 룻기의 다음 구절을 읽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기 1:16)

밖에 폭풍우가 몰아쳐 마차 지붕이 새자, 친구들이 그녀의 얼굴에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프라이 팬으로 가려 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녀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모시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생활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침묵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행위를 지켜 보시는 하나님은 필요한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선교부에 애그뉴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개종한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윌리암 애그뉴는 선교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아내,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두 선교사를 따라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선교사가 그 가족을 데리러 왔을 때, 애그

그림 : 그랜트 슈렉

"작은 라디오를 켰을 때,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차드 엘 에반스 장로님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말라' (에베소서 4:26)라는 주제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주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뉴 집안에 조그만한 언쟁이 일고 있었습니다. 애그뉴 형제가 "몰몬 주일학교에 가시 않겠다"며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부인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속했잖아요. 이 젊은이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이에요." 애그뉴 형제는 "나는 안가겠어. 이제 그만둬."라며 오히려 화를 내면서도, 마지못해 아내와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가는 것만은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의 사건을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나간 뒤 혼자 거실에 남아 있으려니, 몰몬 신앙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듯이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간 신문을 집어들고 세상의 문제들을 읽음으로써 종교 문제에서 떠나보려 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 줄곧 저의 머리속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몰몬교도들을 만나러 나갔다는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 이사벨의 침실에 들어 갔습니다. 저는 뉴스를 들어 색다른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을까하여 침대곁 조그만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의 합창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차드 엘 에반스 장로님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말라' (에베소서 4:26)라는 주제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주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으며, 이 젊은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행하겠노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새로워진 남편, 새로워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도 유쾌한 기분으로 들떠 있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태도가 바뀌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할께. 당신이 애들과 함께 나갔을 때 난 몹시 화가 나 있었지. 당신과 아이들 모두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신문을 읽었어.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그래서 이사벨의 침실에 가서 뉴스라도 들으려고 라디오를 켰지. 그랬더니 글쎄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의 노래가 들리고 리차드 엘 에반스라는 사람이 내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고 하는거야. 내 생애 중에 이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야.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교회 모임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 선교사와 부지런히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아빠 굉장한 이야기네요.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이사벨, 그건 사실이야"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사벨이 잠시 생각한 후에 "거짓말이세요, 아빠. 제 침대곁 테이블에 있는 라디오를 켰다고 하셨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하얗고 자그마한 것 말야."

"아빠, 그 라디오는 몇 주일째 고장나 있는 걸요. 제 생각에는 진공관이 타버린 것 같아요."

"이사벨, 그 라디오는 정상이었어, 같이 가보자." 그가 가족을 데리고 이사벨의 침실로 가 침대 옆 테이블에 다가가 한시간 전에 했던 것처럼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라디오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진리를 성실히 추구하는 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실 필요가 있자, 그 라디오가 작동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메시지를 그의 마음속에 들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후에 그는 그 와드의 감독이 되었고 그의 세 자녀 모두가 교회에서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은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떤 이가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잘 모르겠으나, 그의 개가 우리집 꽃밭을 짓밟아 놓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동차 경적 소리를 울려 한 밤중에 잠을 깨워 놓습니다. 그집 아이들이 어찌나 떠들어 대는지 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의 집 창에 검은 천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친하게 지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난 뒤에야 이웃과 친해져서 그 집 주인이나 부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교회 부름을 수행할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모사이야서 2:17)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훌륭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 봉사에 대한 보상이 즉각 주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의 눈에 활기가 넘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활동이 저조한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들을 돕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활동적인 회원이 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분들도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의 쌍둥이 형제가 솔트레이크 동쪽에 있는 빅 카튼우드 골짜기에서 교회 활동 모임을 하고 있을 때 피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원회 지도자는 그 소년을 위해 봉사하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이끌고, 동기를 부여 해 주라는 부름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 소년을 잃은 깃 때문에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고문이었던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숨진 소년의 장례식에서 말씀해 주도록 부탁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임무 지명이었으나 그는 해냈습니다. 그런 뒤 그는 살아 남은 쌍둥이 형제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받아 본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편지였습니다. 그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공개합니다.

"사랑하는 카네기터 형제님,

"브라이언의 장례식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께서는 제가 거의 잊어버리고 있던 브라이언과 함께 했던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모두 해주셨습니다. 브라이언과 저는 형제님이 지금까지의 고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저희를 정말로 세심히 보살펴 주셨고 저희에게 시간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으며, 생활 속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저희에게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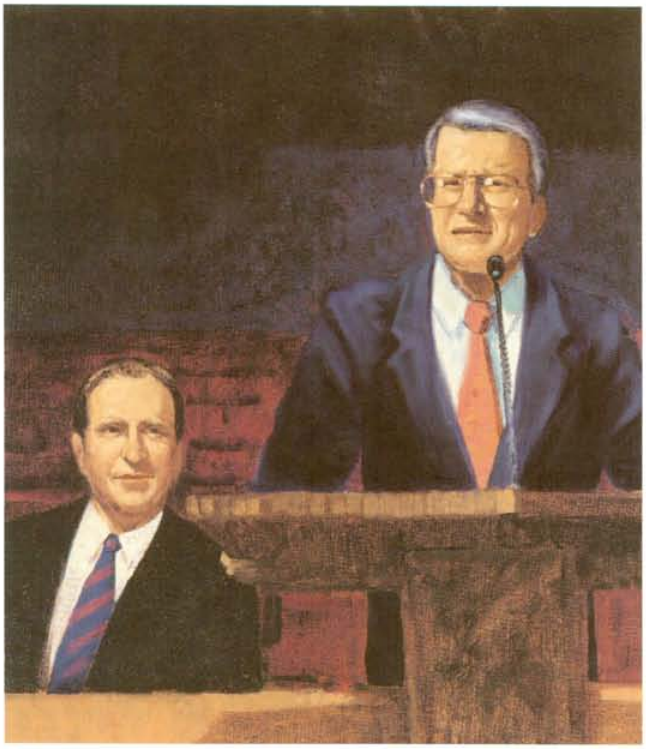
"우리는 브라이언이 몹시 그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 주었던 온전한 생활의 모범과 용기와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카네기터 형제님,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형제님처럼 명석하고 이해심 많고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형제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형제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야 말로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 사람의 가슴에 주어지는 위안이 아니겠습니까? 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도 똑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 모데스토에서 열린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그 스테이크를 둘로 분리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그 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10년인가 15년 전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전에 그 지역에서 가진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곳은 스탁톤 스테이크라고 했는데, 모데스토는 그 스테이크의 한 단위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님 성함이 무엇이었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루커- 클립튼 루커라는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단 위에 앉아 있는 스테이크 부장단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이 스테이크가 바로 클립튼 루커라는 분이 감리했던 그 스



저는 이 훌륭한 분을 앞으로 나오시게 하여 그 분이 돌보았던 스테이크의 회원들의 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제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테이크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은 전임 부장님이십니다."

"제가 이곳에 왔다간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루커 형제님이 오늘 이곳에 와 계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 분을 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연단으로 걸어나가 "회중 가운데 클립튼 루커 형제님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계셨습니다. 그는 활동실 뒤켠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분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겠다는 영감을 느꼈습니다. "루커 형제님, 단위에 형제님 자리가 있으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클립튼 루커 형제님이 한참 걸어서 단위로 올라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 스테이크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인 그 분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스테이크 회원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축복을 받은 진정한 수혜자였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저는 그 분에게 "루커 형제님, 저와 함께 고등 평의원실에 가서 이 두 스테이크의 새로운 부장단을 성임하는 일을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고등 평의원실에 가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함께 손을 얹고 두 스테이크의 부장단을 성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로 포옹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분의 아들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몬슨 형제님, 제 아버지에 관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는 내 온 생애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이 훌륭한 분을 앞으로 나오시게 하여 그 분이 돌보았던 스테이크의 회원들의 갈채를 받게 하고 그 분이 살아 계신 동안에 우정을 느낄 수 있도록 눈깜짝할 사이에 제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애 중에 받은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멋진 것은 주님께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2.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분은 그것을 아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3. 우리들 각자에게는 교회 부름을 수행할 기회가 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훌륭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은 없다.

4.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서 행하겠나이다

로리 리브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이 편안할 때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선교사들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헌신과 준비, 희생, 그리고 구세주에 대한 사랑의 모범을 키우는 생활을 해왔습니다."(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관리 감독단,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62쪽)

만일 독자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결심, 준비, 희생 그리고 구세주에 대한 사랑의 모범에 관한 것이라면, 현재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5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알아볼 필요는 없다. 그들 가운데 네 사람 만을 골라 각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해 본다.

운동선수

스탠리 몰레니가 자신의 젊은 시절에 했던 스포츠 종목은 대체로 럭비와 농구뿐이었다. 그러다가 뉴질랜드에서 하와이로 이사온 후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기 전에 그는 미식 축구를 알게 되었다. 그는 이 "미식 축구를 무척 좋아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축구에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는 덕을 보았다.

코치들은 그의 신장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스탠리의 신장은 188 센티미터였다. 하지만 당시 그의 체중은 91 킬로그램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때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3학년이 되고 나서 이 경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체중이 아직 93 킬로그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록킹이나 태클에서 여러 번 실패했어요. 사실 저는 이 게임 방법을 그렇게 잘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코치들은 그의 체중 미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 관심을 보였다. 특히 그의 체중이 113 킬로그램으로 늘어난 후로 그러했다. 결국 그는 심사 숙고 끝에 브리감 영 대학교 전속 미식 축구 선수가 되기로 각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스탠리는 199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대학에 등록하지 않고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타로 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스탠리는 이렇게 말한다.(지금 캘리포니아 주 벤투라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는 거기서 몰레니 장로로 알려지고 있음) "저는 평생 동안 선교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선교사로 나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지요."

그가 선교사로 나갈 계획을 방해한 것 중에는 대학 미식 축구 경기에 참가하고 싶은 유혹도 포함되어 있었다.

몰레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구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해요. 학자금을 뒤로 제쳐 두고 선교 사업하러 나온 저를 그가 존경한다고 말했을 때, 참으로 그것은 저에게 좋게 들렸어요."

몰레니 장로는 지금 선교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그는 대학생이 되어 미식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

그는 미식 축구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저는 신체적으로 뒤져 있을 거에요. 그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축구하는 요령과 선교 사업 요령에는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강훈련과 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축구 기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었죠. 지금은 근면함과 주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악가

로절리 룬드는 다섯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늘 바이올린 켜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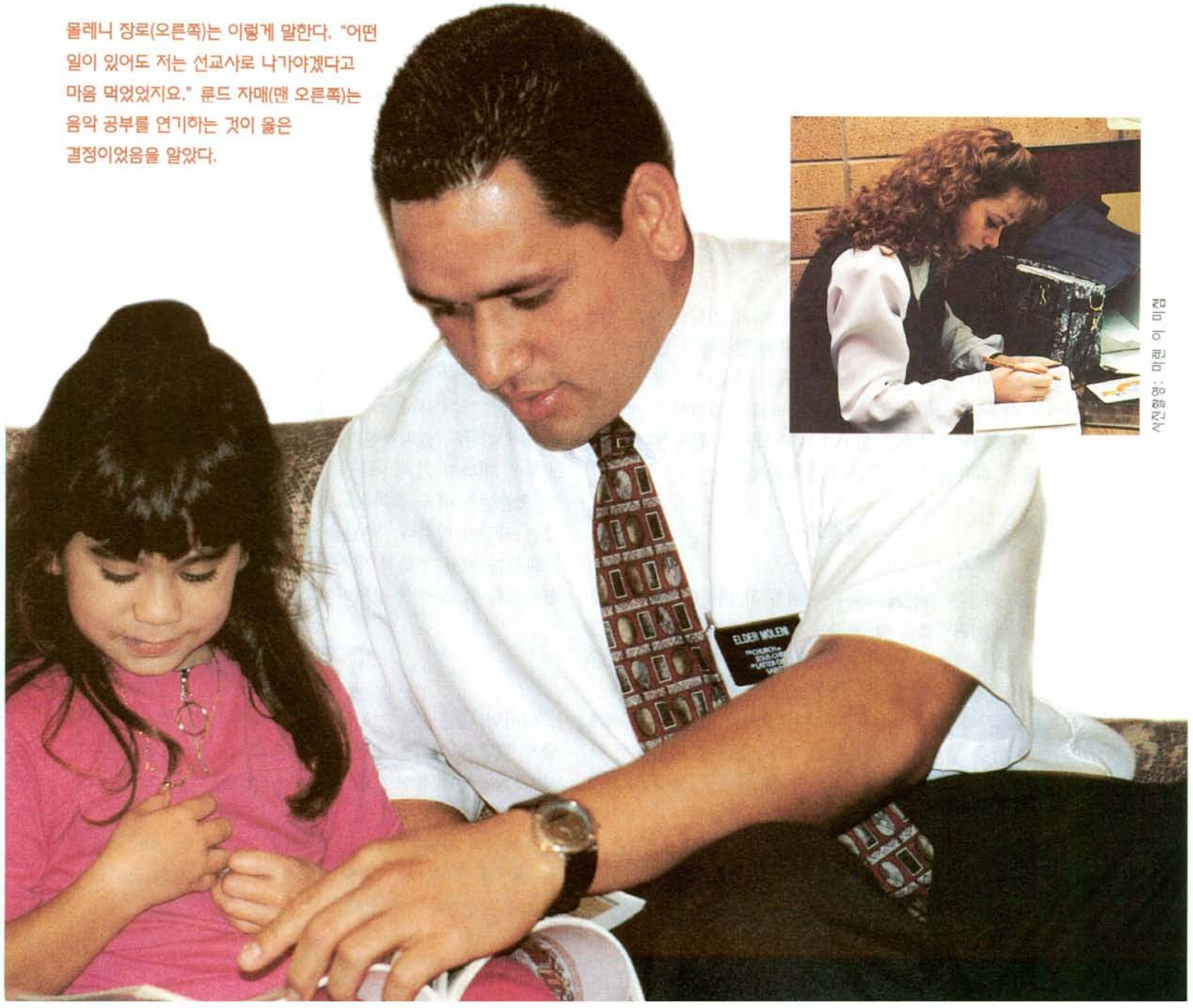
그렇다면 그녀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 18개월 동안이나 바이올린 연주를 쉬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룬드 자매가 1996년 12월에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로 봉사하러 출발하기 전까지 늘 들어 왔던 질문이다. 룬드 자매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어떤 관현악단에 전속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비회원인 많은 단원들은 그녀의 그런 결심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룬드 자매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 가운데 서너 명은 내가 한창 젊을 때 선교 사업하러 간다고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나를 보면 언제나 '룬드 양이 무엇 하러 간다고 했지?' 하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녀는 의례히 "많은 집을 방문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려 한다"고 대답해 주었다. 룬드 자매는 또 단원들이 그녀가 그냥 눌러 있으면 음악계에서 온갖 영화로운 일을 누릴 수 있을텐데라고 말하면, 그녀는 즉시 선교사로 나가면 계획했던 온갖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거라며 위대한 일을 하나 하나 지적해 주기도 하였다.

몰레니 장로(오른쪽)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선교사로 나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었지요." 룬드 자매(맨 오른쪽)는 음악 공부를 연기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알았다.



사진제공: 로절리 룬드

그녀가 "한창 젊을 때" 선교사로 나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창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녀는 선교사로 나가 봉사할 결심을 한 것이다.

룬드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옳다고 느낀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선교 사업을 하러 가야한다는 매우 강한 느낌을 받아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며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지요. 만일 음악에 어떤 진실이나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지금도 음악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룬드 자매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참가한 공연을 기억하고 있다. 모두들 연습 일정과 다가올 행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가올 행사들은 룬드 자매가 참가하지 않는 행사였다.

이에 대해 룬드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사실 매우 슬프지 않았어요. 기회를 잃어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기회를 잃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어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룬드 자매는 불가피하게 바이올린 연주 기술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특히 선교사 규칙상 바이올린을 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문은 컸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틀림 없이 저의 기술은 녹쓸거에요. 저에게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귀환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들 중에는 바이올린 연주자들도 있어요. 그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그들의 기술은 녹쓸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제가 바이올린 연주를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의 기술은 회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개종자

애쉴리 라본은 자신이 "한 몰몬 여자"와 데이트하고 있다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몰몬 교회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애쉴리는 대학 재학중에 선교사들과 복음 토론을 시작했고 그의 계획은 바뀌었다.

애쉴리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들이 제2토론 동안 제게서 침례 받을 결심을 받아 낸 후, 저는 집으로 전화해서 부모님에게 제가 침례 받을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부모님은 그다지 꺼려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애쉴리가 선교 사업을 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가정 사정은 정말 어려워졌다. 현재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애쉴리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님은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 전혀 기쁘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크게 노여워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노여워하시는 것을 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어머니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에게 매일같이 타일렀어요."

그러나 라본 장로는 선교사로 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님과, 특히 아버지와 말다툼할 때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 방으로 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얼마 동안 다툼은 계속되었다. "저의 가족은 어느 가족보다 훌륭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교 사업을 하러 가야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마다 어머니는 우셨고 아버지는 노하셨어요."

그 후 라본 장로가 부모의 지지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그의 부모의 마음이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그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기 전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 있는 곳으로 오시더군요. 아버지는 저를 안으면서 '이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라본 장로의 아버지는 아들의 임박한 출발을 앞두고 그가 얼마나 고민을 하였으며 아들이 떠난 후 아들이 보고 싶어 얼마나 쓸쓸해 할지에 관해 자상한 말씀을 해주었다. 라본 장로는 또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로 나간 후, 저는 가족들로부터 제가 예상치 않은 매우 영적인 편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라본 장로와 그의 동반자가 솔트레이크시티 동쪽 부근을 걸어가고 있는 사이, 라본 장로는 자기가 정말로 선교사라는 사실에 지금도 놀라워한다고 말한다. 3년 전만 해도 그는 이 교회에 대하여 거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이같이 말한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도록 늘 도우실 것입니다."

교사

다이너 림은 1993년에 남동부 필리핀 대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4세였다. 초등교육 전공 학생 시절, 림 자매는 대학에 들어가 졸업 후 교사로 취업할 것을 신중히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필리핀 다바오에 있는 어느 육아원에 취업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되었다. 여기서 그녀는 10~11세 학생들을 가르쳤다.

다이너는 열 아홉 살 때 3명의 여동생들과 함께 교회 회원이 되었다. 스물 한 살이 되었을 때, 다이너는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대학을 마치기로 결심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가족이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디나의 육아원 교사 직업은 그녀의 어머니와 다섯 명의 자매들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디나 림 자매 가정의 주된 재정 지원자인 그녀의 아버지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거기서 전기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이너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가정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가 꽤 어려웠어요. 그러나 육아원에서 가르치는 일과 그같은 일을 2년 동안 여러 차례 계속한 후, 저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선교 사업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고 금전 이외의 다른 면에서 가족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다이너의 부모와 오빠는 비회원이다. 다이너는 기도를 많이 한 후, 결국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했다. 얄궂게도, 다이너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사직을 그만두고 있었던 것이다.

다이너는 이렇게 말한다. "학교 교장 신생님은 정말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저를 눌러 있도록 하기 위해 주임이라는 더 높은 직책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 제안은 그녀를 유혹하는 또 하나의 선택 사항이었지만 다이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필리핀 퀘손시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장이 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했음을 알았다. □

림 자매(맨 오른쪽)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의 교사직을 포기하였다. 라본 장로(아래)는 3년 전만 해도 이 교회에 대하여 거의 아무것도 몰랐었다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의 말씀

이 사업은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계시를 통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그 조직 이후 번창하고 발전해 왔으며 결코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온 땅의 백성들을 축복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라이에의 땅 위로 태양이 떠오를 것을 확신하듯 이러한 사실들을 확신합니다."[1]

선교 사업의 축복

"여러분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기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므로 이는 희생이 아닌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투자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또한 희생 대신 축복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선교사로 이 사업에 봉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희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삶에 축복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2]

활동이 저조한 자들을 위한 기도

"장로 정원회 회장 여러분, 여러분은 성임 받지 않은 자들을 비롯하여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책임 맡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들에 대해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에 대해 주님께 간구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도움과 지시를 간청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크고도 놀라운 기적의 자원입니다."[3]

성전의 축복

"저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성전]을 이용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을 그곳에서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기념비로서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불멸함을 믿는 말씀으로서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고취시키고 품위 있게 만드는 것들로 이 지상 생활과 사후 세계에 관해 기르쳐 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개인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또한 영원한 결혼 관계를 가르치고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것에 관해 가르쳐 줍니다. 그 곳은 빛의 곳이요, 평화의 곳이며, 영원한 것들을 다루는 사랑의 장소입니다. 만일 오늘 밤 이곳에, 그 거룩한 집에 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께, 그 곳에 갈 수 있도록 생활을 정비하고 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하고도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4]

의식이 없는 복음은 불완전함

"복음은 주님의 집에서의 의식이 없이는 부분적으로만 완전할 뿐이며, 교회를 완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집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남녀와 12세 이상의 소년 소녀들에게 주님의 집에 와서, 소년 소녀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고, 남자와 여자들은 자신들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인봉 받은 후 계속 되풀이해서 오도록 결심하게 하십시오."[5]

청소년을 위한 교육

"교육은 기회를 열어 주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찮은 이유로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여러분에게나 교회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자신을 다스리며, 여러분의 손과 마음을 교육하고, 세상적인 직업을 갖도록 자격을 갖춤에 있어 그 방법 때문에 더욱 존중 받고 영예로울 것입니다."[6]

공적인 태도의 세속화

"저는 우리 가운데에 만연하고 있는 무서운 사회 병폐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우리의 거의 전반에 걸친 공적인 태도의 세속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에 관해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생활 및 사회 생활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지겠다는 강한 확신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약화시킬 그러한 문제들에 말려들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7]

의로운 자들의 영향

"어쩌면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들로 인해 일부 사악한 자들도 살려 두실 것 같은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는 옛날 '들의 성들을 멸하던 시대'(창세기 19: 29 참조)의 의로운 자들처럼 서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대하고도 의미 심장한 책임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딸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지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 파멸 당할 것에서 구하기 위한 지시를 받아 우리 자신을 더욱 효과적인 도구요, 진정한 전사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8]

십일조

"십일조는 신앙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 그대로 믿으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가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9]

가족 기도

"여러분 가운데에 가족 기도를 갖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바로 지금 함께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고 가능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이야기하며 감사를 표하고, 세상의 궁핍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축복을 기원하며 여러분 자신의 복리에 관해 말씀드리십시오. 저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며 여러분에게 가족 기도를 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를 표하고 마음의 소망을 그분 앞에 나타낸다면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10]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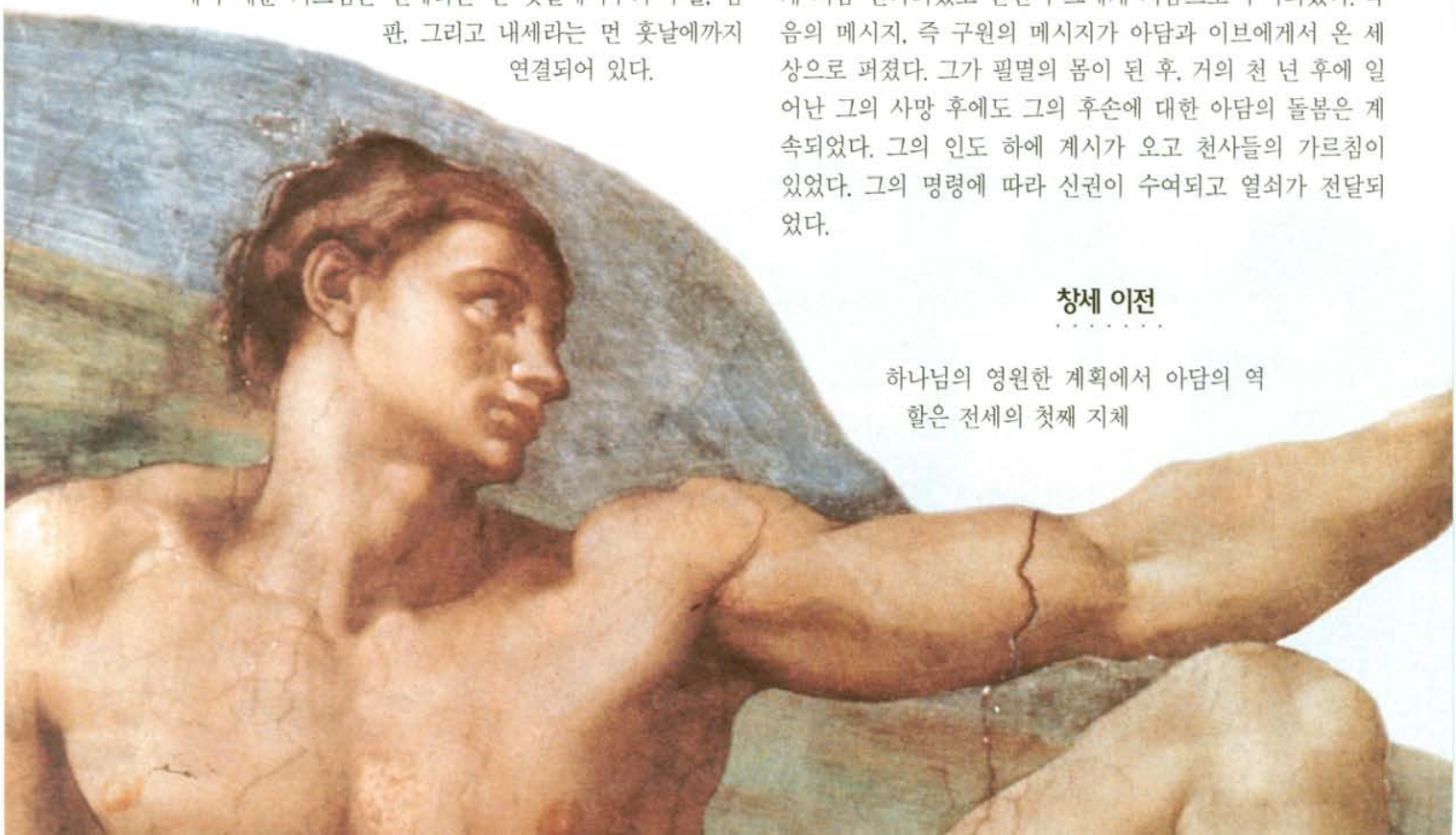
1. 1996년 2월 18일, 하와이 주 오아후, 지역 대회
2. 1996년 2월 17일, 하와이 주 호놀룰루, 선교사 모임
3. 1996년 4월 20일, 유타 주 스미스필드 로간,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4. 1996년 5월 23일, 대만 타이페이, 노변의 모임
5. 1996년 11월 15일, 브라질 레시페, 성전 기공식
6. 1996년 7월 14일,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 청소년 모임
7. 1996년 8월 4일, 유타 주 프로보, 백주년 기념 사회 봉사
8. 1996년 9월 14일, 오레곤 주 유진,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9. 1996년 11월 8일, 콜롬비아 보고타, 노변의 모임
10. 1996년 11월 1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노변의 모임

인간 아담

로버트 엘 밀렛

말일성도들은 천사장 미가엘을 고귀한 인간의 가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지구를 창조하는 일을 도왔지만, 여전히 주님의 군대를 이끌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쫓아낼 것이다.

구원의 계획에 인간 아담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가 지구에 사는 아들과 딸들 가운데에서 베푼 가르침은 전세라는 먼 옛날에서부터 부활, 심판, 그리고 내세라는 먼 훗날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천사장 미가엘인 아담은 천국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루시퍼의 군대와 맞서 싸웠다. 엘로힘과 여호와의 지시 하에, 그는 지구의 창조를 도왔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필멸의 몸이 되었다. 우리의 최초의 부모의 타락으로 인하여, "마지막 아담"(고린도전서 15:45)인 구세주를 통한 구속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피와 자손과 시련과 사망이 온 것이다. 복음이 아담에게 처음 전파되었고 신권이 그에게 처음으로 부여되었다. 복음의 메시지, 즉 구원의 메시지가 아담과 이브에게서 온 세상으로 퍼졌다. 그가 필멸의 몸이 된 후, 거의 천 년 후에 일어난 그의 사망 후에도 그의 후손에 대한 아담의 돌봄은 계속되었다. 그의 인도 하에 계시가 오고 천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신권이 수여되고 열쇠가 전달되었다.

창세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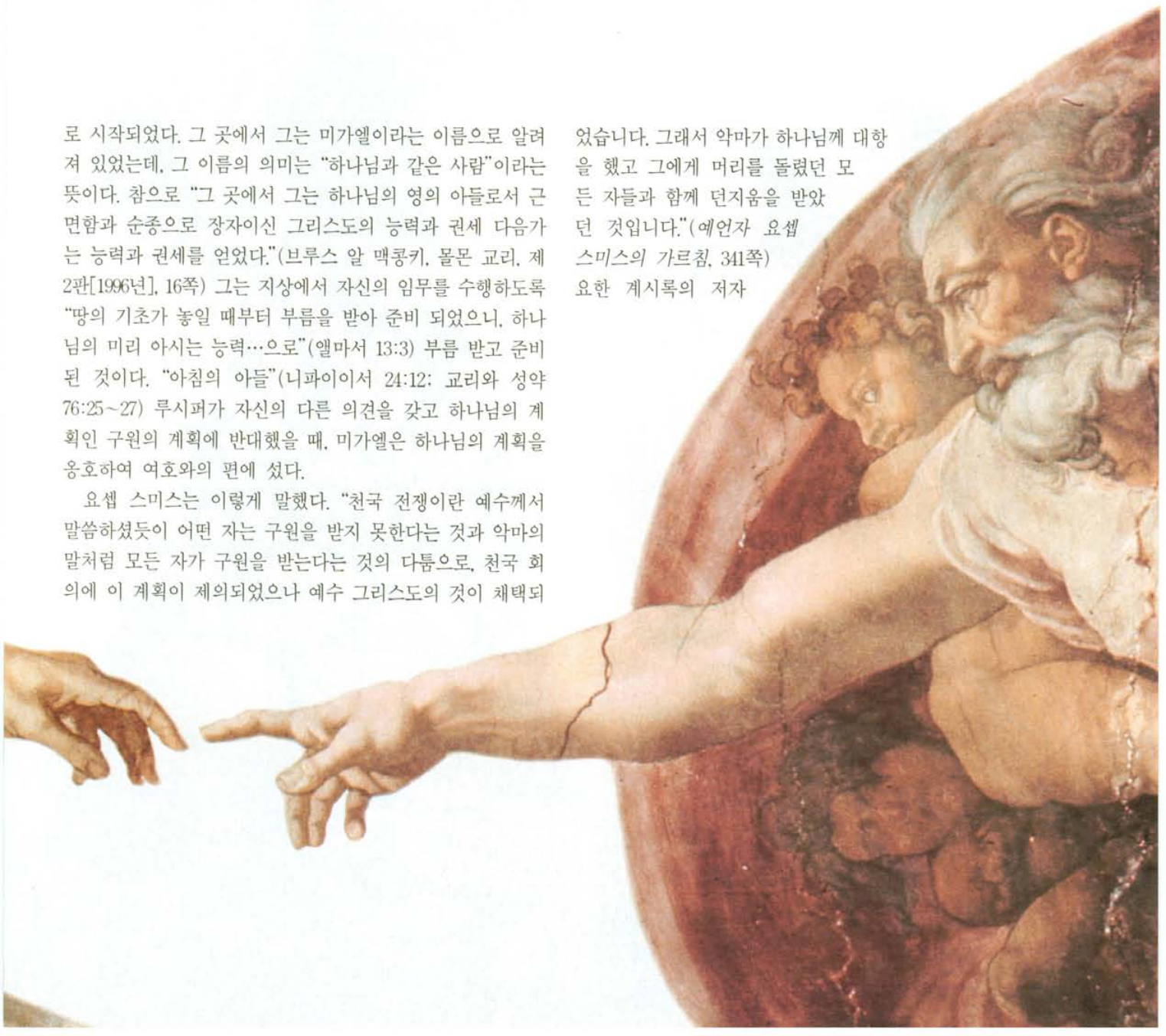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아담의 역할은 전세의 첫째 지체

그림: 토마스 코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보스톤/미술 박물관, 엠과 엔 케롤릭 수집품

로 시작되었다. 그 곳에서 그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참으로 "그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의 아들로서 근면함과 순종으로 장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다음가는 능력과 권세를 얻었다."(브루스 알 맥콩키, 몰몬 교리, 제2판[1996년], 16쪽) 그는 지상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부름을 받아 준비 되었으니,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능력…으로"(앨마서 13:3) 부름 받고 준비된 것이다. "아침의 아들"(니파이이서 24:12; 교리와 성약 76:25~27) 루시퍼가 자신의 다른 의견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의 계획에 반대했을 때, 미가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옹호하여 여호와의 편에 섰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천국 전쟁이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악마의 말처럼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다툼으로, 천국 회의에 이 계획이 제의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하나님께 대항을 했고 그에게 머리를 돌렸던 모든 자들과 함께 던지움을 받았던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41쪽)

요한 계시록의 저자



"…주의 한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바치느뇨? 아담이 저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이 일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리며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니라."

그림: 텔 파슨, *자녀들을 가르치는 아담과 이브*,

는 다음과 같은 시현을 보았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요한계시록 12:7~9)

미가엘은 지상을 육신의 시험 장소로 준비시키는 일에 직접 관여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주님은 그리스도와 마리아, 아담과 이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고귀하며 위대한 자들의' 집단을 구성하는 힘센 남자와 동등하게 영화로운 여자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아브라함 3:22~24) 아버지의 지시 하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리스도의 동반자요 동료인 미가엘이 창조의 많은 부분을 주관하였고, 아브라함이 본대로, 그들과 함께 고귀하며 위대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이브와 타락", 스펜서 더블류 킴볼 외, 여성[1979년], 59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신권은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졌느니라. 그가 첫 대관장단의 직을 얻었고, 그 열쇠를 쥐었으니, 이는 대대로 계승되는 것이라. *그는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세상이 형성되기 전, 천지 창조 때에 이를 받았느니라.*"(*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6~147쪽)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둘째 지체인 필멸의 운명이 시작될 때가 왔을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가엘에게 육신을 주시고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가 되도록 그를 부르신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이었다. 누가가 쓴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아담에 대한 숭고한 묘사로 끝을 맺는다.(누가복음 3:38; 모세서 6:22 참조) 아담이라는 이름은 "인간" 또는 "인류"를 의미하며 그의 위치는 "모든 인간의 최초의 사람"(모세서 1:34)으로서 그의 전세에서의 상태가 탁월했음을 암시한다.

창조의 초기에 아담과 이브 및 모든 생명체는 낙원의 상태로 존재했다. 만물은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사망을 겪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는 의미에서 또한 *영적인* 상태를 띠고 있었다.(고린도전서 15:44; 앨마서 11:45; 교리와 성약 88:27 참조, 또한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르스 알 맥콩키 편, 3권[1954~1956], 1:71~73쪽)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다. 아담은 지구에 있는 "만물의 주인이요 통치자로서 창조되었음과 동시에 아무런 장막 없이… 하나님과 친교를 가졌다." 요셉 스미스, 신앙 강화[1985년], 12쪽)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최초의 부모는 영원히 그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니파이이서 2:22; 모세서 4:9 참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일성도의 견해는 매우 낙천적이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다고 믿으며, 그들의 행동이 "세상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2쪽) 타락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임된 계획의 일부였다고 믿는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아담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선한 이유로 그 열매를 먹었으며,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 데려올 문을 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브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었더라면,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며, 오늘날까지 그 곳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대회 보고, 1967년 10월, 121쪽)

타락(창조 및 속죄와 같이)이 영원에 필요한 세 기둥의 하나이며, 필멸의 육신, 사망, 인간의 경험, 죄 등과 그것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이 타락의 결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한 일을 경멸보다는 오히려 큰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 타락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지

그림: 로버트 티 베렛, 기록하는 아담

하나님과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아담과 이브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의 유익을 위해
"아담의 언어로"(모세서 6:5)… 기억의 책에
기록되었다.

만 앞으로도 나아가는 이중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타락은 인간을 세상으로 데려와서 그를 영원한 진보의 길에 놓았습니다".(올슨 에프 휘트니, *교리에 관한 카울리와 휘트니의 견해* 중, 포레이스 그린 편[1963년], 287쪽) 에녹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존재하나니."(모세서 6:48; 니파이이서 2:25 참조)

에덴 동산의 바깥

타락은 또한 죄와 사망의 문을 열었다. 이 생은 시험 기간,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다.(니파이이서 2:21; 앨마서 12:24; 34:32; 42:4 참조)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장막이 드리워졌으며, 필멸의 인간은 "주의 임재하신 곳에 가지 못하게… 문이 닫혀"(모세서 5:4)졌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이브는 천사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성신의 권세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다.(모세서 5:1~12, 58 참조)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부터 실제로 갈라놓은 장막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 관한 아담의 기억이 지워진 것은 아니었다. 요셉 스미스가 분명하게 설명했듯이, 아담이 그의 "범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관련하여 에덴 동산에서 받은 지식을 박탈 당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도 그분의 뜻을 그에게 나타내시기를 그치지 않으셨다".(*신앙 강화*, 14쪽) 존 테일러 대관장은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에 관한 지식을 얻었습니까?"라고 질문한 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지식을 얻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상에서 복음과 신권을 지닌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갖지 않았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복음 왕국*, 지 호머 더럼 편[1987년], 91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즉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기독교 예언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고 기독교의 의식을 집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종교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57~58쪽 참조) 아담은 지상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는 물로 침례를 받았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으며, 신권을 받았다.(모세서 6:64~67 참조) 또한 아담과 이브는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었으며, 그럼으로써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 들어섰다.(*교회 정사*, 2:320 참조; *몰몬 교리*, 118쪽) "아버지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충만한 멜기세댁 신권에 성임되었습니다. 즉 지상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사이고 가장 높은 직책에 성임된 것입니다."라고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말씀했다.(*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의 설교집*, 지 호머 더럼 편[1946년], 64쪽; *구원의 교리* 3:81 참조

아담은 죽기 3 년 전에 아담 온다이 아만 골짜기(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정착한 장소; 존 테일러, *중보와 속죄*[1882년], 69쪽; 매티아스 에프 카울리, *윌포드 우드럽*[1964년], 481, 545~546쪽 참조)에 의로운 후손들을 불러 모았다. 일곱 세대의 충실한 가장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예언적인 권고를 받기 위하여 모였다. 그 곳에서 아담은 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축복을 주었다. 예언자 요셉은 이 신성한 행사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시현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담 온다이 아만 골짜기에서 아담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손들을 불러 모아 축복사의 축복을 주고 있었으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아담)가 그들을 모두 축복하였으며 마지막 세대에 임하게 될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아담이 그의 후손을 축복한 연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8쪽)

아담은 지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예언자로서 지상을 다스렸다. 그는 또한 지상의 관리 대제사였으며, 그리스도 하에서 인류를 축복하고 지구에서 의로움이 영속되게 하는 권능의 열쇠를 지닌 사람이었다. "이 열쇠는 하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으로 전해져야 하느니라. 그 열쇠가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리 하에 주어진] 아담의 권능에 의한 것이라."(*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7쪽; 또한 교리와 성약 78:16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다. "[아담은]… 영적으로도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구원의 계획은 알려졌으며, 그에게 최초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으며 금후로도 계속 계시될 것입니다. 아담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모든 시대의 경륜이 그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그리스도 때부터 이제 밝혀질 경륜의 끝날까지도 아담을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7쪽)

사망 이후

가장 오래되신 이라고 불리우는 아담은 이 지상에서 약 930년을 살았다.(모세서 6:12 참조) 그의 사망으로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이 경우에서 날이란 주님이 측정하시는 한 기간을 의미하는데—그가 "정녕 죽을 것임이라"(모세서 3:17; 아브라함서 5:13)라는 신성한 계율이 성취되었다. 아담은 죽은 뒤에 영의 세계에서 낙원으로 알려진 부분으로 들어갔다.(니파이이서 9:13; 앨마서 40:12; 모로나이서 10:34 참조) 그 곳에서 그는 약 3,000년 동안 그의 충실한 후손들 사이에서 가르치고 일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아담이 "온 인간의 영을 다스리는 자"(*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7쪽)이기 때문에, 그의 목자로서의 임무와 행정상의 책임이 그의 사망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의미에서, 하늘에서의 전쟁이 우리 자신의 시대에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사탄을 저지하고 반대하려는 아담의 노력 또한 아담의 육신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브루스 알 맥콩키, *신약 전서 교리 주해*, 3권[1966~1973년], 3:423 참조) 바로 이 시대에, 미가엘은 사스케하나 강변에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악마"(교리와 성약 128:20)를 간파했다. 지구의 역사에서 미가엘이 루시퍼를 책망하고 루시퍼의 힘을 억제하는 입장을 취했던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놀란다.

아마도 미가엘이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지 모르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최후의 만찬에 이은 속죄의 밤에 예수님이 세상의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도의 소외감과 슬픔에 굴복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 그는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탄식을 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누가복음 22:42~43)

엄청난 고뇌의 늪 속에 빠져 있는 죄없는 인자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 보조 천사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깊이 사색해 본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에덴 동산에 온 천사가 첫번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바로 그 똑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모든 하늘의 천사군, 즉 보조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아담은 적어도 그러한 엄숙한 경우에 주님에게 도움과 위안을 줄 필연적인 사람인 것 같다.* 아담은 타락했고, 그리스도께서는 타락으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셨다. 그 두 가지 모두 하나가 되는 사업이었다. 두 가지 부분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구원 받는 데 필수적이었던 것이다."(*필멸의 메시야:*

그림: 윌리엄 블레이크

아담이 언젠가는 아담 온다이 아만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을 것이며,….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 7:14)

베들레헴에서 갈보리까지, 4권[1979~1981년], 4:125; 또한 엔사인, 1985년 5월호, 10쪽 참조)

예수님이 영의 세계에 들어오셨을 때, 그 곳을 시현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수많은 의로운 영들과 함께 모여 있는 위대하고 강한 영들 가운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요 만인의 아비인 시조 아담이 있었으며,

"우리 인류의 영예스러운 어미인 이브도 여러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 왔던 많은 충실한 딸들과 함께 있었고,"(교리와 성약 138:38~39) 아담과 이브는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 나는 그들의 구원의 때를 기뻐하고 기다리며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 주님은 나타나신 뒤, 의로운 무리를 가르치고 조직하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불의한 영들과 회개하지 않은 영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을 따르는 영들을 가르치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들이 부활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어 그의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불사 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게]"(교리와 성약 138:18, 20, 51)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언제 첫째 부활에서 부활하여 해의 영광에 들어갔는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많은 고대 예언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부활할 당시에 아담의 부활이 있었는지(교리와 성약 133:54~55 참조), 아니면 죽은 자의 구속 사업을 감독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영의 세계에 남아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일의 계시로 볼 때 아담은 결국 승영에 들어가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앉아 있으며, 그가 해의 영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교리와 성약 132:37, 137:5 참조) 아담이 부활한 후에, "[그]의 활동 기반은 그러한 의로운 부활을 한 사람들이 이 지구가 해의 왕국이 되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아담이 지닌 신권의 열쇠는 전세에서부터, 그의 필멸의 육신의 임무 동안 내내, 내세의 영의 세계에까지, 그리고 부활의 때까지 그에게 계속 속해 있다."(래리 이 달, "타락에서 사망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의 아담의 역할", *인간 아담*, 조셉 필딩 맥콩키 및 로버트 엘 밀렛[1990년], 121쪽)

미래

현대의 계시가 없었다면, 다니엘서의 다소 모호한 구절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점에서, 이례적인 집합에 대한 언급이 주어졌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7:13~14)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미주리 주 데이비스 군인데, 이 곳이 아담이 죽기 3년 전에 수많은 그의 후손들과 함께 모여 그들에게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 즉 아담 온다이 아만임을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다.(교리와 성약 116편 참조) 구세주께서 영광 중에 오시기에 앞서 있을 이 집합에 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 곧 미가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자녀들을 한데 모아 회의를 갖고, 인자의 오심을 대비해서 자녀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아담)는 인류의 아비요, 온 인간의 영을 다스리는 자이며, 열쇠를 가진 모든 자가 이 큰 회의에서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중 몇 명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인자가 그의 앞에 서며, 그에게 영광과 통치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그리스도께 이양하리니 이 직분은 우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는 인류의 머리로 존속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7쪽)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대회, 즉 평의회에서,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지닌 모든 사람은 그

그림: 존 스코트. 최후의 심판. 워싱톤 성전의 그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회 대관장 판권 소유; 어떠한 복제도 인정되거나 허락되지 않음.

"나의 천사 장 미가엘이 나팔을 불 것이요, 그 때에 죽은 자들이 모두 깨어나리라.… 저들이 나올 것임이니, 참으로 모든 자가 다 나오리라. 의인은 나의 오른 편에 모여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요, 나의 왼편에 있을 악인은 내가 저들을 소유하였음을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여기리라." (교리와 성약 29:26~27)

들이 받은 청지기 직분과 관련된 보고서를 낼 것입니다. 아담도 그렇게 할 것이며,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권능을 그리스도에게 돌려 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담은 그의 후손을 다스리는 왕의 부름에 확인될 것이며, 이 관리하는 부름에 공식적으로 임명되어 영원히 왕관을 쓸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집합이 한 번에 얼마나 오래 계속 되며 이 대평의회에서 집회가 얼마나 열릴지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자들의 집회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집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며, 통치권(달란트)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들이 지닌 열쇠와 임무를 선포할 것이고 비유의 말씀대로 그들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보고를 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5:14~30 참조] 이것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권능의 열쇠를 지녀왔고 또 현재 지니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집회이기 때문에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이 멸망하는 큰 날에 앞서 일어날 것이며 복천년 통치를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인간의 진보*[1964년], 481~482쪽; 브루스 알 맥콩키, *복천년의 메시야*: 인자의 재림[1982년], 578~588쪽 참조)

주님이 승리의 영광으로 돌아와 "세상의 종말, 즉 악인의 멸망"(요셉 스미스-마태복음 1:4)을 일으키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첫째 부활이 재개될 것이다. 그때 미가엘, 즉 아담이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나의 천사장 미가엘이 나팔을 불 것이요, 그 때에 죽은 자들이 모두 깨어나리라. 이는 저희 무덤이 열리며 저들이 나올 것임이니, 참으로 모든 자가 다 나오리라."(교리와 성약 29:26)

여러 천사들에 의해서 지상에 회복된 열쇠들의 본질을 토론하면서,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거룩한 신권은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곳, 현세에서 인간을 구하는 권능과 권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필멸의 육신과 사망을 가져다 준 아담은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불사 불멸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권세를 회복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열쇠와 불사 불멸의 상태로 영혼을 일으키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분의 종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활에 나아오도록 부르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복천년의 메시야*, 119~1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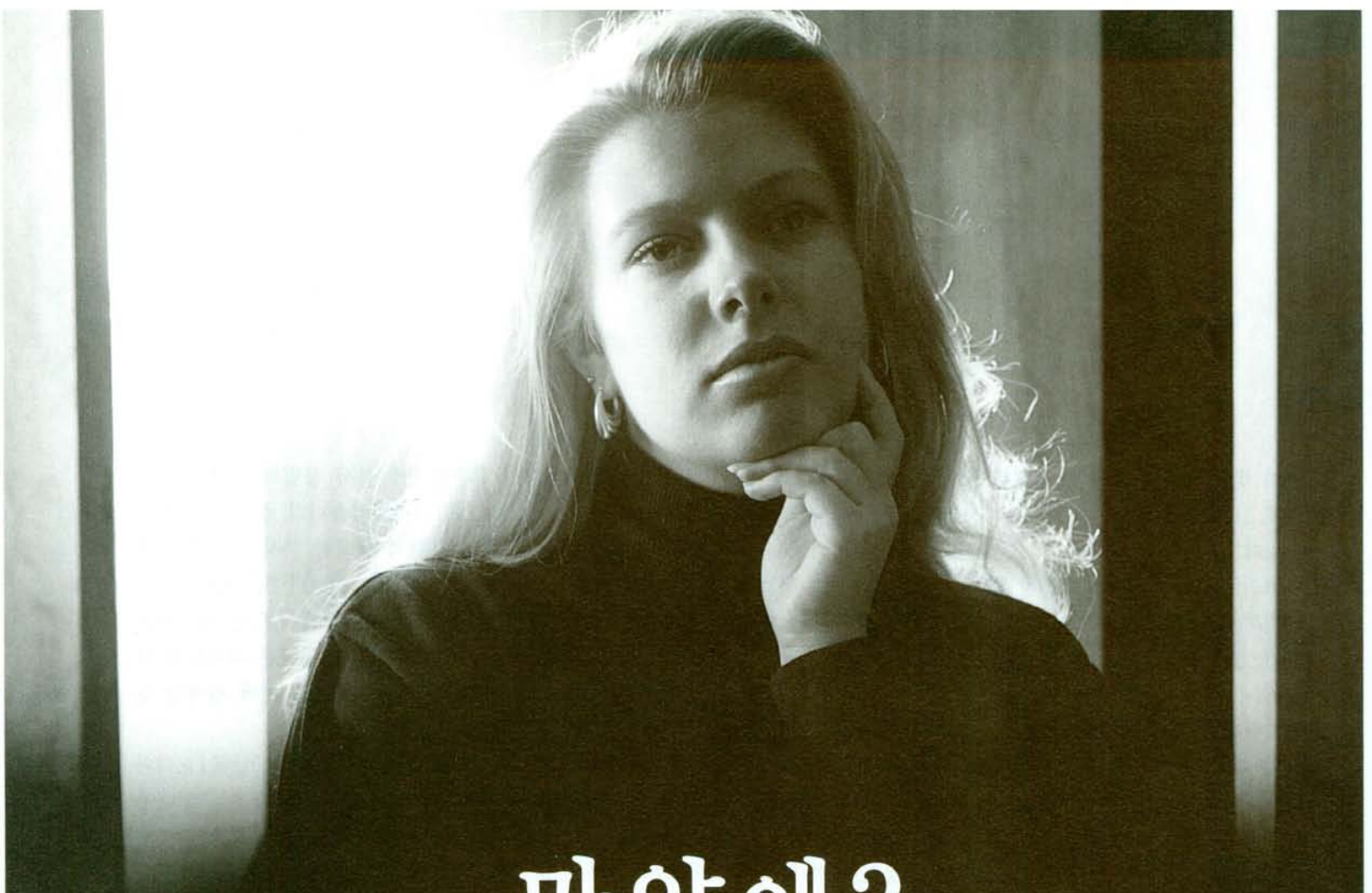
복천년이 끝나는 시기라는 의미인 지상의 끝날에,(교리와 성약 88:101; 요셉 스미스역—마태복음 1:55 참조) "위대하신 하나님의 싸움"(교리와 성약 88:114), 또는 곡과 마곡의 싸움(*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65쪽; 또한 요한계시록 20:8 참조)으로 알려진 선과 악 사이의 마지막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의 영원한 대장인 강력한 미가엘이 전쟁에서 그의 사탄과 맞서 싸울 것이다. "악마와 그 군대는 전에 있던 곳으로 던짐을 받아 다시는 성도들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힘도 발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는 미가엘이 성도를 위하여 싸워 보좌에 앉으신 이 곧 어린양의 보좌를 빼앗으려는 자를 이길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결케 된 자의 영광이니, 저들이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8:114~116) 마지막으로 미가엘이 승리하게 되며, 이는 지상을 해의 왕국으로 만드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구원의 계획에서 너무나 자주 아담의 위치와 역할이 오해되어 왔다. 종교계의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를 경멸한다. 그를 찬양하는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상한 형태의 숭배 내지 심지어는 예배의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아담을 오해한다는 것은 주님과 그 분의 계획과 우리의 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질까지도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 아담의 생애와 수고에서 예시되었듯이 인간의 기원과 운명에 관한 지식은 말일성도들에게 심오한 유산의 하나가 된다. □



만약에?

쉬일러 킨드레드

평생 나는 교회가 참되다는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다. 나만의 간증을 키우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나는 이제껏 선생님들이나 친구들과는 다른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약에 복음이 참되지 않다면? 만약에 선의의 친구들과 부모님이 여태까지 현혹되어 온 것이라면? 만약에 몰몬경이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면? 만약에 오늘날 살아 있는 예언자도 없고 가족도 영원하지 않다면?

이러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자 어두운 먹구름이 나의 생각을 뒤덮기 시작했다. 마음의 문이 어딘가로부터 닫혀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그날 하루종일 난 무감각한 상태로 방황을 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불친절한 생각과 행동을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무런 진전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던 세미나리 공과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교리와 성약 9장 7절에서 9절까지에 응답을 얻기 위한 지침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그릇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가졌던 질문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했을 때, 나는 이제까지 내가 배워 왔던 것이 참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기도했으며 이번에는 나의 믿음들이 옳은 것인지를 물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해의 왕국이라는 곳이 있는가? 신권은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인가?'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었다. 내 믿음이 그른 것이 아님을 영이 확신시켜 주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간증을 나누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나의 진실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응답을 주셨다. 나는 이제 내 스스로 이제껏 믿어 왔던 것들이 정말로 참된 것임을 알고 있다. □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준행함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만들어 내고 통제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결과를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가르쳤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1997년], 71쪽) 자유의지는 우리의 영적 발전에 필요하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사용은 좋든 나쁘든 언제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함

어린 소년 시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니파이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7)

힝클리 대관장은 "그 때 어린 제 가슴에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결의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고, 신권 지도자의 권고를 따른다면, 그분은 비록 길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 곳에라도 길을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성도의 벗*, 1995년 6월호, 4쪽)라고 말씀하신다. 평생을 통한 경험들은 힝클리 대관장에게 "말일성도의 행복, 말일성도의 평안… 말일성도의 영원한 구원과 승영은 하나님의 신권 지도자들의 권고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놓여 있다."(*성도의 벗*, 1995년 6월호, 6쪽)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함

영 대관장은 진리의 원리들에 순종하는 자유의지의 사용이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되는 지상의 유일한 길."(*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브리감 영*, 73쪽)이라고 말했다. 물론 우리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기까지는 그 진리의 원리들에 순종할 수 없다.

메리 엘런 에드먼즈는 필립핀에서 만났던 한 자매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그 자매는 첫 아이를 잃어버린 셀리 필로벨로란 자매였다. 다시 아기를 갖게 된 이 자매는 에드먼즈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다. "건강한 몰몬 아기를 낳으려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에드먼즈 자매와 복지 선교사들은 셀리 자매에게 건강과 영양에 관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쳤고 필로벨로 자매는 그 새로운 원리들을 용기 있게 받아들였다.

몇 년이 지난 후 에드먼즈 자매는, 셀리로부터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원리들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저는 지금 저의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 중에서 몇 가지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것들은 저의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진리는 저의 자녀와 또 그들의 자녀가 후손 대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성도의 벗*, 1993년 3월호, 18쪽)

진리에 대한 순종은 축복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항상 깨달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주님의 율법이 있다. 이 율법은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것이다.(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그 분께 순종할 때 우리를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해준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오는 가장 큰 자유는 그 분의 면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93:1)

- *불순종에서 오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축복 받는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에스 마이클 윌콕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경배하려면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장차 갖게 될 모습에 합당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년 시절에 나는 훌륭한 분들을 많이 알게 되어 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어머니로부터 받은 깊은 영향에 대해 나는 각별한 고마움을 느낀다.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따른 것은 그 분이 내게 미치는 권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분이 지닌 참된 모습 때이었다. 설사 그 분이 지닌 권위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나는 역시 그 분을 따랐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다.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은 다음의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출애굽기 20:2~3)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단지 이 계명 때문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 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그 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지극히 많으시며 전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구약전서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첫번째 계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다음 질문에 연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이사야 46:5) 구약전서에 나오는 성도들은 여호와와 같은 신이 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나는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하였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사무엘상 2:2)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린이었을 때, 나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린 이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에게 처음으로 알려 주신 일이 있다. 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마가 소녀였을 적에 나는 남동생과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서 가곤 했단다. 우리는 언제나 지름길로 갔었다. 그때마다 우리는 도중에 커다란 검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분을 따르라고 권유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된다.

개 한 마리가 있는 곳을 통과해야 했다. 우리가 개의 집 옆을 뛰쳐가는 동안 개는 우리 뒤를 쫓아오곤 했다. 우리가 꼭 알맞은 시간에 뛰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담 있는 데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어느 때 뛰어가야 좋을지는 남동생이 알려 주곤 했다.

"어느 날 히루는 나 혼자서 걸어가야 했다. 그러니 그날은 내가 알맞은 시간에 뛰어가지를 못했다. 개는 으르릉대며 나를 위협하였고 나는 겁에 질려 옴쭉달싹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있었다. 개가 나에게 대들기 시작하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셔요!' 하고 안간 힘을 다해 큰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개는 갑자기 멈췄는데 그것은 마치 무언가에 가로막혀 오지를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어서 담을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나는 무사했단다. 그때 나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게 되었단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경배하시던 하나님에 대해 나에게 많은 것을 암시해 주었다. 그 후 어머니의 이야기는 나에게 안도감이랄까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위안 같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기도에 대한 나의 이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졌다.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면서 직접적인 응답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며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을 끌어들인다면, 그 분은 영원의 장막을 뚫고 손을 뻗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참으로 우리 주님 같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갈라디아서 4:6) 하셨다고 가르쳤다. 이 성구의 말씀에는 공손하면서도 스스럼 없는 친근감이 담겨져 있다. "'아바'는 젖먹이들이 발음하는 말씨로, 이성적으로 생각지 않은 신뢰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부자 관계를 의식하는 데서 나오는, 지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들 단어는 둘 다 자녀들의 애정과 신뢰심을 나타내 준다."(더블류 이 바인이 펴낸 *신약전서 용어 사전*(1966년), "아바" 참조) 욥, 아브라함, 요셉, 한나, 다윗은 모두 이런 신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면한 어떠한 도전에도 맞설 수 있었다. 이 신뢰심이야말로 첫번째 계명이 주어진 핵심적 이유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썼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이사야 63:16) 이 성구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조상들은 사라졌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들을 처음으로 안아보는 값지고도 엄숙한 순간 동안에 영의 속삭임이 나에게 그들의 독특한 개성을 가르쳐 주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느낌을 처음 받았을 때에는 나는 그럴까 하고 의심했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이 태어날 때 내가 받았던 느낌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귀중한 자녀들을 지상에서 보살펴 주도록 나에게 인계해 줄 때마다 느낌을 통해 이같은 권고를 주고 싶어하는 것에 나는 경이를 느낀다.

이 부드러운 가르침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그녀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 쌍동이 아들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가?(창세기 25:21~23 참조) 또 삼손의 부친에게도 태어날 "아기에게 어떻게"(사사기 13:8) 해주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 같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침례 받을 때에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약속을 맺고 있었다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어머니는 또 만일 내가(주님의 말씀을 행하겠다는) 나의 약속을 지킨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다"(교리와 성약 82:10)는 약속을 경전을 통해 나에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셨다. 나는 어렸을 때 어떤 성인이 나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 후에 내가 "단지 어린이"라는 이유로 약속을 어겼던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하물며 일국의 왕이 일개 농부에게 약속을 해놓고 거기에 얽매인 적이 있었던가? 그러나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여덟 살에 불과한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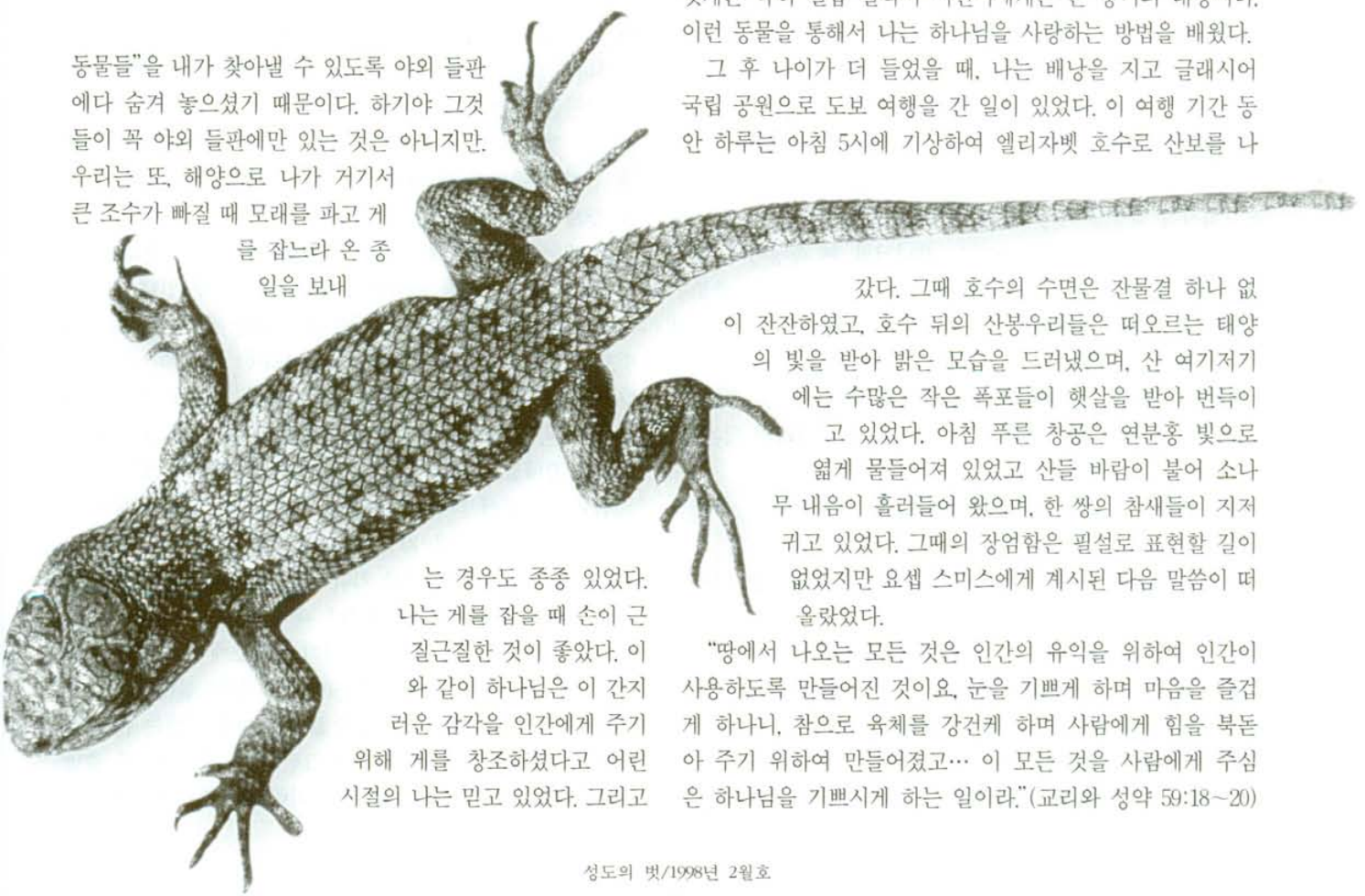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성약과 그 밖의 다른 모든 성약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는 위와 같은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다.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 얼마나 많이 참으셨으며 얼마나 진실하게 대하셨던가? 삼손이 나실인의 모든 서약을 어기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서 힘을 거두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참을성과 사랑이 지극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같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쁨을 주시는 창조주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참으로 그 분은 기쁨을 주시는 창조주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창세기 1:1 참조) 어렸을 적에 나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했지만, 차도로 상행쪽 야외 들판에 뿔도마뱀들(북미 서부 지방에 서식하는 머리에 뿔 모양의 돌기가 있는, 독 없는 도마뱀류)이 많이 모여 우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내가 그것들을 잡아다가 집으로 가져 왔을 때, 어머니는 의례 "오늘은 하나님의 애완 동물 중 무엇을 잡아 가지고 왔니?"하고 묻곤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애완

위 사진 촬영: 스코트 크누슨, 아래 사진 촬영: 로버트 홀름그레인/토니 스토운 이미지스

우리는 뿔도마뱀이나 모랫게 등 하나님의 창조물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다. 참으로 세상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시편 33:5)



동물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도록 야외 들판에다 숨겨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기야 그것들이 꼭 야외 들판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또, 해양으로 나가 거기서 큰 조수가 빠질 때 모래를 파고 게를 잡느라 온 종일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나는 게를 잡을 때 손이 근질근질한 것이 좋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간지러운 감각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 게를 창조하셨다고 어린 시절의 나는 믿고 있었다. 그리고 게도 역시 하나님의 애완 동물 중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운다. 뿔도마뱀이나 모랫게는 특히 일곱 살박이 어린이에게는 큰 흥미의 대상이다. 이런 동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 후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나는 배낭을 지고 글래시어 국립 공원으로 도보 여행을 간 일이 있었다. 이 여행 기간 동안 하루는 아침 5시에 기상하여 엘리자벳 호수로 산보를 나갔다. 그때 호수의 수면은 잔물결 하나 없이 잔잔하였고, 호수 뒤의 산봉우리들은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받아 밝은 모습을 드러냈으며, 산 여기저기에는 수많은 작은 폭포들이 햇살을 받아 번득이고 있었다. 아침 푸른 창공은 연분홍 빛으로 엷게 물들어져 있었고 산들 바람이 불어 소나무 내음이 흘러들어 왔으며, 한 쌍의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그때의 장엄함은 필설로 표현할 길이 없었지만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다음 말씀이 떠올랐었다.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참으로 육체를 강건케 하며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교리와 성약 59:18~20)

그날 아침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아름다움과 고독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시편의 저자는 창조의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이렇게 썼다.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찌어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시편 33:5, 8; 104:24)

어느 해 여름, 나는 나의 아들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유타 주 남부 지방에 있는 개울이 흐르는 깊은 골짜기로 여행을 갔었다. 그 여행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머디 크리크라고 하는, 물살로 깎여진 사암들로 가득한, 좁은 골짜기를 산책하고 있었다. 이곳 머디 크리크는 지상에서 진흙이 가장 많은, 참으로 장엄한 골짜기였다!

스케이트나 썰매를 타고 크리크 비탈길을 달리는 것은 소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일이었다. 소년들이 비록 주위 환경의 장엄함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반응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똑같은 기쁨을 맛보았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소년들이 진흙 위를 미친듯이 달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스케이트로부터 발을 거두어 들이면 스케이트가 내는 소리에 그들이 황홀해 하는 것도 보았고 비탈길 위를 의기 양양하게 질주하는 모습도 지켜 보았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이따금 있다. 어떤 침묵이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해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기도 한다. 그날 나는 그런 침묵을 느꼈다. 나는 누가 지켜보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 보고 있었다. 나는 우리의 기쁨 가운데서 그분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마련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한 속성이다. 하나님은 글래시어 국립 공원 뿐만 아니라 머디 크리크의 창조주이시자 인간과 모랫게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어린이들의 기쁨을 그 자신도 맛보실 수 있으며 동시에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어 성인들에게 경외감과 경이감을 줄 수도 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과 같이 됨

소년 시절의 나에게는 내가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인물이 여럿 있었다. 소설 이야기의 주인공이나 각종 스포츠의 영웅들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그런 인물들보다는 더 진실한 위인들을 가르쳐 주셨다. 예를 들면, 경전에 나오는 위인들을 흠모하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우리 집에는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책을 수시로 나에게 읽어 주셨다. 그 후 내가 성장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최종 종착지가 무엇인지는 우리 구세주의 예가 보여 주고 있다. 인류를 그런 높은 경지로 끌어 올려 줄 경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말고 또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출애굽기 20:3)고 명하셨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사진 촬영: 크레그 다이먼드 오른쪽 그림: 에리 앤더슨,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야기 책이 아닌 진짜 경전을 읽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나는 스포츠 영웅이나 텔레비전 이야기의 주인공을 좋아하지 않고 경전에 나오는 위인들을 더 흠모하였다. 경전의 위인들이 위대했던 것은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는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입어 존귀하게 되거나 용감하게 되었고 혹은 연민의 정을 갖게 되었다.

존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어른이 되면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존귀한 신분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지위로까지 향상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명상과 속죄*[1882년], 145쪽) 그 밖의 다른 힘, 다른 권세 혹은 다른 영향력으로는 보통 사람을 경전에 나오는 영적, 도덕적 거인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만이 그런 존귀는 얻어질 수 있다.

선교사 시절에 나는 살아 계신 사도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을 만나는 특권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 모든 선교사들이 집회소에서 그 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 하면서 마음이 들떠 있었다. 내가 문 있는 쪽으로 등을 향하고 있을 때 마침 패커 장로님이 집회소에 도착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 분을 보지 않았는데도 그 분이 실내에 들어왔음을 알아차렸다. 패커 장로님이 들어 오시자 실내는 온통 내가 어머니 곁에 있을 때 느꼈던, 그런 힘과 순결함으로 충만해 있었다. 마치 경전에 나오는 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현실로

뛰쳐나온 듯한 분위기였다. *이는 한 인간의 평생 동안의 순종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낳은 결과*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런 위대성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느껴 왔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분의 권세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 외에도 내가 장차 되어야 할 대상의 인물이 바로 그분이라고 그분께서 영감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구세주 생활의 예에서 보듯 그분을 닮아 가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최종 종착지가 무엇인지는 우리 구세주의 예가 보여 주고 있다. 인류를 그런 높은 경지로 끌어 올려 줄 경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말고 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출애굽기 20:3)고 명하셨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한 경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날 내가 공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의 여섯 살박이 아들이 경배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들이 한창 놀다가 내가 성구 밑에 줄을 긋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장난감들을 그 자리에 버려 두고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 자신의 경전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더니 침대 위 내 옆에 나란히 누어서 나의 몸 자세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자신의 경전을 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아들은 약 30분 동안이나 나의 색연필을 가지고 성구에 줄을 긋고 있었음을 나는 알아차렸다. 내가 바라보자 아들은 자기가 한 일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쪽을 알아내어 자기 경전의 그 쪽에 내가 작업한 것과 똑같은 모양을 그려 놓지 않았는가. 아들은 내가 표시한 단어들과 똑같은 단어들 위에 똑같은 색깔로 칠해 놓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표시해 놓은 화살표, 줄, 숫자들도 기재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난외 주석까지 그대로 배껴 놓지 않았는가. 난외 주석은 그의 필체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써 넣을 여백이 없을 때까지 적혀져 있었다. 아들은 변명이라도 하듯 거의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제가 줄 친 것은 아빠 것만큼 만듯하질 못해요."

이 작은 사건이 도움이 되어 나는 내가 알고 있던 이전의 원리보다 더 훌륭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진실한 경배는 곧 모방이라는 것이다. 이 모방은 세상적인 일을 그만두고 구세주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여 그분의 성품을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모방하려고 노력할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닮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는 달리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노력이 진지하고 깊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속죄의 힘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더욱 행복하고 평화스런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찌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이사야 46:3~5)

우리는 세상의 신들을 사랑하여 그것들을 무거운 짐을 지듯 마음에 둘 수 있는 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에 의해 높이 들어 올려지고 인도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몹시 개인적이면서 불완전하게 그려왔다. 하나님의 여러 완전함에 대해 그저 스칠 정도로만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 마지막 살아남은 동물까지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명한 구약전서의 하나님(사무엘상 15:2~3 참조)이나, 자연의 재해와 잔인무도한 인간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지상 생활에만 존재하는 상대되는 것들로 빚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소시켜 줄 그런 답변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통찰력 없이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들 각자는 고통과 괴로움과 불공평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는다. 인간의 이러한 불행한 상황들과, 어린이의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놓고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구약전서에는 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 애처롭게 호소하는 글이 실려 있다. 예언자인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 하노라"(말라기 3:14~15)라고 불평을 했다. 그런가 하면 욥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불공평한 문제를 놓고 괴로워 했다.

내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진실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나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생의 목적 뿐만 아니라 생의 시련과 유혹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때부터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모든 점을 고찰하여 그들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동정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는 감정 이입에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고 봉사하고 또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분과 같은 특성들을 몸에 지니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들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긍휼과 동정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궁핍할 때에는 그들에게 봉사하고 자선을 베풀고 그들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게 감정 이입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흔이 있는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련기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데 가장 좋은 시기가 된다.

우리에게는 필멸의 상태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 우리는 삶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잔인성과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도록 허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 동정심을 기르고 지혜와 신앙심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선택은 생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 십대에 접근할 무렵, 어느 날 나는 성전에 들어가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저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아버지의 면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면, 저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희생하겠나이다". 이 기도는 내가 여태까지 한 기도 중에서 가장 진지한 것이었다. 만일 나의 고통이 자녀들 안에 하나님과 같은 특성을 지니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어떠한 고통도 감수할 것이었다. 이러한 소망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것은 나만이 가지는 바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시는 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보다 무한히 위대한 통찰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통을 허용하신다. 격렬한 고통까지도 허용하신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과 같은 완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 요소인 긍휼과 동정과 용서,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십중 팔구 갖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은 승영에 이

르는 인생 역정의 일부분이며, 현세의 시련의 목적의 일부분인 것이다.

유일한 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고 명하셨다.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다. 그 밖의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경전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기술하고 있다.(이사야 61:10; 62:5 참조) 나는 어느 성전 결혼식에서 신부에게 오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몇 시에 기상했느냐고 물어 보았다. 이에 신부는 "새벽 4시에" 기상했다고 대답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느냐"고 나는 물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의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혼식 날의 신부처럼 의로운 면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희망하여야 한다.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 나오는 포오셔가 밧사니오 경에게 애정을 표현한 다음의 글이 보여 주듯,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애정도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한다.

밧사니오님, 소녀는 여기 서 있는 보시는 바
그대로의 저올시다.
저 스스로를 위해서라면
이 이상 더 좋아지려는 야심은 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선
스무 배를 세 갑절한
훌륭한 여자가 되고 싶고,
천 배나 더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윌리암 셰익스피어 작, 베니스의 상인,
제3막, 제2장, 149~154행)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배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장차 갖게 될 모습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분의 현재의 모습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일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 □

우리에게는 필멸의 상태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 우리는 삶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잔인성과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도록 허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 동정심을 기르고 지혜와 신앙심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련기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특성을 지니게 가장 좋은 시기가 된다.

나의 전용

나는 집에서 95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매우 심하게 다쳤다. 나는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움이 필요했다.

티 숀 와이트
그림: 폴 맨

나는 비틀거리며 전기톱에서 물러섰다. 귀는 마구 울리고 있었고 뱃속은 요동을 치는 것 같았다. 더운 피가 팔꿈치로 흘러내리다가 시멘트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붉은 피와 하얀 뼈와 누런 속살이 드러난 처참한 손을 다른 손으로 잡은 채 나는 온통 겁에 질려 있었다.

"팀, 무슨 일이야? 팀? 팀!"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제프였다. 그는 나말고 가게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어서 가. 가서 도움을 청해! 구급차를 불러! 어서!" 이렇게 소리지르자 제프는 문 밖으로 뛰쳐 나갔다.

혼자 남아서 나는 현기증을 덜기 위해 커다란 비닐 두루마리 뭉치에 기대어 누웠다. 나는 얼마 전 대학을 마쳤으며 콜로라도 남쪽 후미진 산악 지대에서 꿈에도 그리던 직업이었던 미국 산림청에서 일하게 되었다. 일주일 전에 나는 호주 멜버른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나는 콜로라도에서 여름 동안 근무를 한 후에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도대체 어디에들 있는거지? 궁금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밖으로 나가서 트럭을 타고 혼자서라도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기증 때문에 몇 발자국 못 가고 다시 돌아와서 미끌미끌한 비닐 두루마리 위에 다시 누워서 눈을 감았다. 얼마 안 있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 왔다.

"이 안에 있습니다." 제프의 목소리

응급 구조단

였다.

눈을 떠보니 제프와 제복을 입은 구급차 요원들이 보였다. 거의 동시에 어떤 남자가 나의 잘린 손을 쥐었고 한 여자는 나의 맥박을 재었다.

"괜찮을 겁니다." 그는 하얀 거즈 붕대로 내 손을 싸면서 말했다. 더 이상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자 좀 안심이 되었다.

"몇 살입니까?" 여자 요원이 물었다.

나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목구멍이 말라서 말하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알레르기가 있는지, 전에 가졌던 병이 있었는지,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마지막 질문에 이르기까지 나는 신속하게 대답했다.

"가족들 중 누구에게 병원에 오라고 연락을 할까요?"

나는 95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는 직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계실 것이었고 아버지는 안전 요원으로서 밤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주무시고 계실 것이었다. 여동생 에린은 학교에 있을 것이었다.

"팀?"

"지금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콜로라도에 사는 가족이 아무도 없거든요."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나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갈 때, 지난 여름 훼손된 산악로를 복구하기 위해 황폐하고 외딴 지대로 혼자 들어가 며칠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때가 생각이 났다.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나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처럼 언제나 동떨어진 곳에 있는 외톨이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팀." 구급차의 여자 요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나요? 목사님이나 신부님같은 분 말이에요."

나는 콜로라도 귀니슨의 작은 지부를 생각했다. 회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지만 이런 문제로 그들을 괴롭히고 싶진 않았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하얀 붕대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갈가리 찢겨져 드러난 속살을 생각하자 몸서리가 쳐졌다.

"윌리 에이커스나 버드 스미스에게 연락해 줘요." 나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에이커 지부장은 얼마전 지부장으로 부름 받았고 버드 스미스는 그의 보좌였다.

"윌리를 알아요.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지요." 그녀는 안심시키듯 말했다.

구급차가 자그마한 병원 앞에 멈췄다. 의사가 나를 안으로 싣고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나를 침대 위에 눕히자 나는 작은 응급실 방 안을 둘러 보았다. 의사는 암적색으로 변한 붕대를 풀면서 간호원에게 침착하게 얘기했다. 나는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마침내 의사는 다 마치고 나서 간호원에게 다시 붕대로 감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한 마디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나는 옆방에서 그가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몇 분 후에 그는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왔다.

"팀." 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상처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여기서는 당신에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전문 기술이나 장비가 없습니다. 방금 당신을 덴버에 있는 병원으로 실어갈 헬리콥터를 불렀습니다. 그 곳에서 당신의 손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동안 가는 길에 편안할 수 있도록 진통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나는 겨우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방금 그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당신의 손을 살린다"란 말이 머리속에서 뱅뱅 맴돌았다. 그 전에는 몇 바늘 꿰매는 정도 이상 다쳐 본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나는 지금 내 한쪽 손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었다.

"내가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이 일이 일어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니면 나를 부르기가 힘들었을껄요." 에이커스 지부장이 방으로 들어오면서 말씀했다. 스미스 형제가 바로 뒤에 따라 들어오셨다. "형제님이 헬리콥터를 타셔야 한다는군요." 나는 끄덕거리기만 했다. 말을 하기에는 너무 기운이 없었다.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스미스 형제가 물었다. 나는 다시 끄덕거렸고 병원의 두 침대 정도가 들어갈 만한 작은 응급실 안 커튼으로 쳐진 좁은 칸막이 속에서 나는 두 가지를 약속 받았다. 내 손이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며 호주에서 선교 사업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에이커스 지부장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고 스미스 형제는 내가 헬리콥터로 실려 갈 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이젠 정말 혼자군." 헬리콥터를 타고 귀니손 위를 날아가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작은 도시의 6,000명의 사람들 중 몇은 알고 있었지만 50만명의 인구가 있는 덴버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옳지 못했다. 헬리

콥터가 착륙하고 헬리콥터의 문을 통해 밖으로 실려 나갈 때 콜로라도 덴버 남 선교부에서 온 한 선교사 부부가 나를 맞아주었다. 그들의 하얀 머리와 따뜻한 미소는 나의 조부모를 연상시켜 주었다.

"지부장님의 부인께서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이번 주쯤에 당신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물어 보더군요. 그래서 바로 이리로 왔지요." 제프리 자매가 설명했다. 그들은 그날 오후 늦게 수술팀이 모여서 수술할 준비가 끝날 때까지 내 침대 곁에 앉아 있어 주었다.

나는 제프리 장로님과 자매님이 함께 있어 주길 원했지만 수술이 진행될 동안은 같이 있어 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긴 복도를 따라 그들이 걸어 나가는 것을 지켜 보았다.

"안녕하세요. 전 마취사인 라일 힐먼이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내 침대로 다가오며 인사했다. "전 네시 반에 퇴근할 예정이었지만 당신이 여기서 저 말고 유일한 몰몬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당신의 마취사가 되어도 괜찮겠는지 물어보기로 했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그러십니까?" 나는 다친 이후 처음으로 농담을 했다.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위해 빨리 배워 보도록 하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손에 입은 심한 손상을 복구하기 위한 수술은 14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나는 덴버에 2주 정도 머물렀다.

사고가 난 다음날, 어머니는 유타 주 오렘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 덴버까지 왔고, 병원에서는 선교사들이 어머니를 맞아 주었다. 덴버에서 삼일 동안 어머니는 그 전에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교회 회원들 집에서 머물렀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 몇 주 동안에도 나는 계속적으로 부부 선교사와 힐먼 형제님의 방문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독신 와드에서 온 여섯 명의 회원들이 매주 세 번씩 나를 격려하러 와 주었다. 내가 떠나기 전날 밤, 그들은 나를 입원실로부터 "납치"하여 병원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에도 여섯 번이나 더 수술을 받았고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끝에 다시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선교사 부름은 육 개월 뒤로 연기되었지만 나는 더욱 더 강한 열정으로 2년 동안의 선교 사업에 임할 수가 있었으며 멜버른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언제나 가족으로 남을 교회의 형제나 자매들을 돕고 보살피는 것에 관해서 가르칠 수가 있었다. □

헬리콥터가 착륙했을 때 그 곳에는 한 선교사 부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실에도 교회 회원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나만의 영적인 응급 구조단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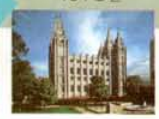
전세계의 성전

1870년 | 1880년 | 1890년 | 1900~1920년 | 1920년 | 1930~19

1. 세인트 조지 성전,
1877년 4월 6일,
다니엘 에이치 웰스
1975년 11월 11일 재헌납,
스펜서 더블류 킴볼

2. 로간 성전,
1884년 5월 17, 21일,
존 테일러
1979년 3월 13일 재헌납,
스펜서 더블류 킴볼

3. 맨타이 성전,
1888년 5월 21일,
윌포드 우드럽과 로렌조 스노우
1985년 6월 14일 재헌납,
고든 비 힝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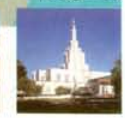


4. 솔트레이크 성전,
1893년 4월 6일,
윌포드 우드럽

5. 하와이 성전,
1919년 11월 27일,
히버 제이 그랜트
1978년 6월 13일 재헌납,
스펜서 더블류 킴볼

6. 앨버타 성전,
1923년 8월 26일,
히버 제이 그랜트
1991년 6월 22일 재헌납,
고든 비 힝클리

7. 에리조나 성전,
1927년 10월 23일,
히버 제이 그랜트
1975년 4월 15일 재헌납,
스펜서 더블류 킴볼



8. 아이다호 폴스
1945년 9월 23일,
조지 앨버트 스미스

50.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성전,
1997년 6월 1일,
고든 비 힝클리

49. 유타 마운트
팀파노고스 성전,
1996년 10월 13일,
고든 비 힝클리

48. 홍콩 성전,
1996년 5월 26일,
고든 비 힝클리

47. 유타 바운티풀 성전,
1995년 1월 8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1990년

46. 플로리다 올랜도
성전,
1994년 10월 9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45.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성전,
1993년 4월 25일,
고든 비 힝클리

44. 온타리오 토론토
성전,
1990년 8월 25일,
고든 비 힝클리

43.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성전,
1989년 12월 16일,
고든 비 힝클리

42. 오리건 포틀랜드
성전,
1989년 8월 19일,
고든 비 힝클리

1980년

41.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
1987년 8월 28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40. 콜로라도 덴버 성전,
1986년 10월 24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3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
1986년 1월 17일,
토마스 에스 몬슨

38. 페루 리마 성전,
1986년 1월 10일,
고든 비 힝클리

37. 한국 서울 성전,
1985년 12월 14일,
고든 비 힝클리

36.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
1985년 8월 24일,
고든 비 힝클리

35. 일리노이 시카고
성전, 1985년 8월 9일,
고든 비 힝클리
1988년 10월 8일 재헌납,
고든 비 힝클리

34. 스웨덴 스톡홀
성전,
1985년 7월 2일,
고든 비 힝클리

1980년

새로운 성전

51. 유타 버널 성전,
1997년 11월 2일,
고든 비 힝클리

현재 성전이 건축 중인 곳

보스톤 매사추세츠
콜롬비아 보고타
볼리비아 코차밤바
에콰도르 과야킬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프레스톤
브라질 레시페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

앞으로 성전이 건축될 곳

뉴멕시코 앨버커키
몬태나 빌링스
브라질 캄피나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멕시코 몬테레이
테네시 내슈빌
뉴욕

캐나다의 첫번째 성전
앨버타 성전, 1923년

북미 대륙 밖의 첫번째
성전, 하와이 성전,
1919년

남미 대륙의 첫번
상파울루 성전, 19

유타의 첫번째 성전,
세인트 조지 성전, 1877년

전 세계에는 51개의 교회 성전이 사용 중에 있다. 각 성전 옆에 있는 숫자는 헌납된 순서를 알려 주는 것이며, 1877년에 맨 먼저 헌납된 유타의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 각 성전의 이름 옆에는 헌납된 날짜와 헌납자의 이름이 함께 나와 있다.

1950년 1960년 1970년

스 성전,
월 11일.
오 맥케이
0월 23일 재헌납.
힝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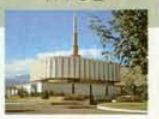
10. 로스엔젤레스 성전,
1956년 3월 11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11. 뉴질랜드 성전,
1958년 4월 20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12. 런던 성전,
1958년 9월 7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1992년 10월 18일 재헌납.
고든 비 힝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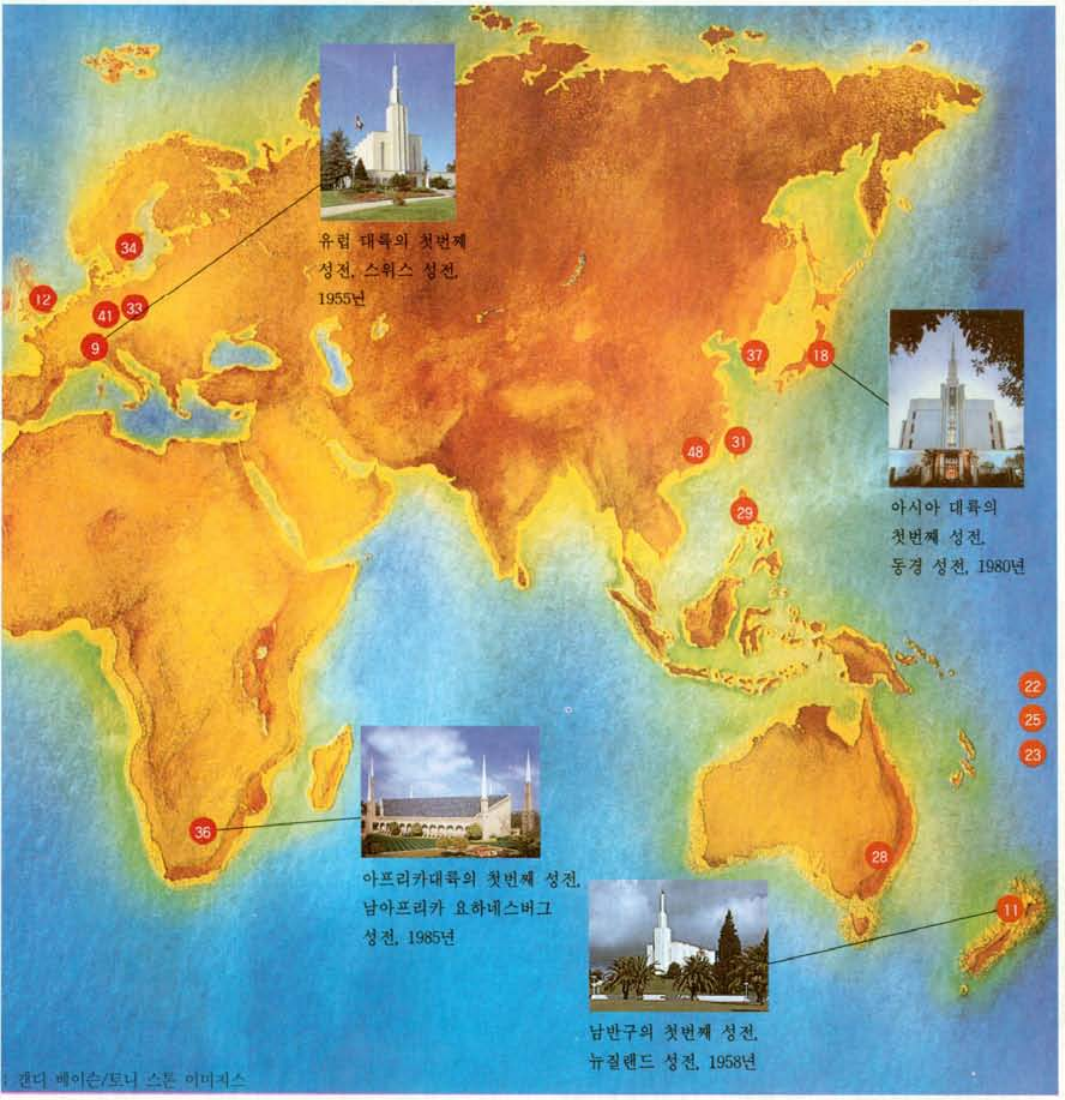
13. 오클랜드 성전,
1964년 11월 17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14. 옥든 성전,
1972년 1월 18일.
조셉 필딩 스미스



15. 프로보 성전,
1972년 2월 9일.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 리 대독)

16. 워싱턴 성전,
1974년 11월 19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유럽 대륙의 첫번째 성전, 스위스 성전, 1955년

아시아 대륙의 첫번째 성전, 동경 성전, 1980년

아프리카대륙의 첫번째 성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 1985년

남반구의 첫번째 성전, 뉴질랜드 성전, 1958년

캔디 베이슨/토니 스톤 이미지스

17. 상파울루 성전,
1978년 10월 30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18. 동경 성전,
1980년 10월 27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19. 시애틀 성전,
1980년 11월 17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20. 조던 리버 성전,
1981년 11월 16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매리온 지 폼니 대독)

21. 조지아 에틀랜타
성전, 1983년 6월 1일.
고든 비 힝클리

22. 사모아 아피아 성전,
1983년 8월 5일.
고든 비 힝클리

23.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
1983년 8월 9일.
고든 비 힝클리

24. 칠레 산티아고 성전,
1983년 9월 15일.
고든 비 힝클리

25. 타히티 파피에테
성전, 1983년 10월 27일.
고든 비 힝클리

1980년

일 프라이베르그
5월 29일.
힝클리

32. 과테말라시티 성전,
1984년 12월 14일.
고든 비 힝클리

31. 타이완 타이페이
성전,
1984년 11월 17일.
고든 비 힝클리

30. 텍사스 댈러스 성전,
1984년 10월 19일.
고든 비 힝클리
1989년 3월 5일 재헌납.
고든 비 힝클리

29. 필리핀 마닐라
성전,
1984년 9월 25일.
고든 비 힝클리

28.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성전,
1984년 9월 20일.
고든 비 힝클리

27. 아이다호 보이시
성전, 1984년 5월 25일.
고든 비 힝클리
1987년 5월 29일 재헌납.
체임즈 이 파우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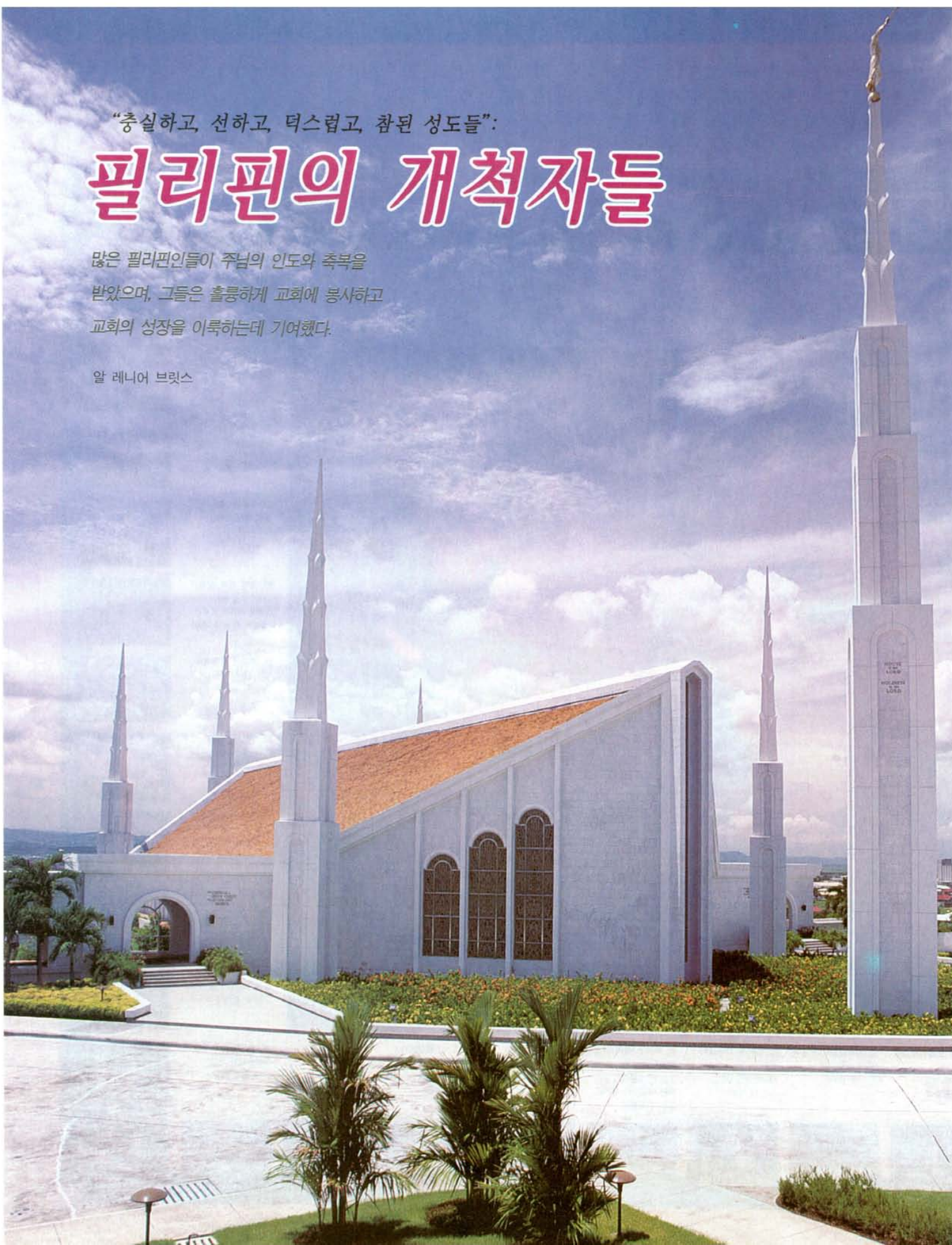
26. 멕시코시티 성전,
1983년 12월 2일.
고든 비 힝클리

"충실하고, 선하고, 덕스럽고, 참된 성도들":

필리핀의 개척자들

많은 필리핀인들이 주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았으며, 그들은 훌륭하게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의 성장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

알 레니어 브릿스



복음 선교사들이 필리핀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61년이다. 처음에는 말일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23년 후인 1984년에 필리핀 마닐라 성전이 헌납되었을 당시의 회원 수는 75,000명이 넘었고, 스테이크 수가 15개에 이르렀으며, 지방부와 와드와 지부의 수도 매우 많아졌다. 그 이후에도 교회의 성장은 빠른 속도로 계속되어 현재는 40만 명에 가까운 회원수로 늘어났다.

이 놀라운 성장의 씨앗은 말일성도 군인에 의해 뿌려졌다.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시 유타에서 온 조인 윌라드 콜과 조지 시맨은 선교사로 성별되었으나 개종자 침례는 한 명도 없었다. 반 세기 후에 발발한 2차 세계 대전 동안에 몇몇 말일성도 군인이 1944년과 1945년에 연합군에 소속되어 이 섬에 진주하게 되었으며, 이 군인들은 여러 곳에서 교회 모임을 가졌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필리핀 내에 많은 말일성도 군인이 남아 있었다. 한국 전쟁의 발발로 말일성도 군인들이 또다시 필리핀에 오게 되었다.

마닐라 근교 클라크 공군 기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필리핀 회원들의 집으로 사용되었으며, 1955년 8월 21일,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바로 이 기지에서 필리핀을 복음을 전파할 나라로 헌납했다.

맥신 테이트 그림

필리핀에서 살았거나 군인으로 복무했던 수백 명의 성도 가운데서, 맥신 테이트 그림은 필리핀의 초기 교회를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1945년 맥신 테이트는 적십자 요원으로서 필리핀에 도착하였다. 전쟁 이후에 그녀는 미육군 중령으로 마닐라에 오래 거주하고 있던 이 엠 "피트" 그림과 결혼하여 필리핀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세월이 흘러 그림 자매는 꾸준하게 아시아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피트는 1967년까지는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여러 국가에 문을 열어 교회가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자매는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때면 항상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의 집은 교회 활동의 중심지였고 마닐라의 처음 침례자 2,000명은 거의가 다 그림 자매의 수영장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림 자매는 교회 모임이나 활동에서 페달 오르간을 연주하였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그녀의 노고를 아무리 치하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 회원수가 대단히 많은 이 도서국가에서, 그녀는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쉐리 안 알 세필드, "필리핀의 진정한 개척자", 처치 뉴스, 1993년 2월 13일, 11쪽)라고 말씀했다.

다른 회원들과 클라크 공군 기지나 수빅만 해군 기지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할 때 외에, 1961년까지 그림 자매와 두 자녀는 다른 말일성도 가족과 힘을 합쳐 교회 활동을 주관했다. 이러한 상황은 1961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진 제공: 맥신 테이트 그림

맥신 그림 (아래)과 말일성도 군인들과 함께 한 사진(오른쪽)은 필리핀에 선교 사업의 기초를 놓았고 나아가 필리핀 마닐라 성전(왼쪽)이 건축될 수 있게 한 많은 외국인 교회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복음 선교사 활동이 시작됨

필리핀을 사랑하는 미국 군인,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 곳에 사는 다른 회원들은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1960년에는 당시 십이사도 보조였던 고든 비 힝클리 장로에게 필리핀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세리 엘 듀, 신앙으로 나아가라:고든 비 힝클리 자서전[1996년], 214쪽)

1960년 처음으로 필리핀을 방문한 힝클리 장로는 필리핀을 선교 지역으로 바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 법적 수속은 더뎠다. 그러나 힝클리 장로와 남극동 선교부장인 로버트 에스 테일러 부장은 선교사 비자가 머지않아 발급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권능을 부여 받아, 1961년 4월 28일에 미 전몰 군인 추모 기념관에서 선교 사업 개시를 위한 모임을 갖기로 계획했다.

고요하고도 평화로운 아침 6시 30분, 100여 명의 교회 회원이 모였는데 대부분은 군인과 그의 가족이었으나 필리핀인 회원인 데이빗 래그맨도 끼여 있었다. 소규모 기념 예배당 근처에서 모임을 가졌다. 짤막한 모임의 마지막에 힝클리 장로는 이렇게 기도했다. "이 섬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앞으로 이 땅에 오게 될 사람들을 친근하게 환대하며,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게 해주시길 간구하옵니다.… 충실하고, 선하고, 덕스럽고, 참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고든 비 힝클리,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업의 시작", 데이트라인 필리핀즈, 1991년 4월호, 17-18쪽, 또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226-227쪽 참조: 608쪽)

그 이후 그의 기도는 여러 번 응답되었다. 복음 선교사의 비자가 곧 승인되었으며 1961년 6월 5일 네 명의 선교사가 홍콩에서 마닐라로 전근되어 왔다. 그 곳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는지, 선교사들은 방문한 가정마다 환대를 받았다.

선교사들이 도착한 후 필리핀에는 개종자들이 이 젊은 교회를 개척해 가고 양육해 갔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진척시켜 나갔다.

루빈과 네니타 가피즈

루벤 가피즈와 네니타 레이즈는 필리핀에 교회가 들어간 초기에 개종했던 필리핀 회원들이다. 1961년 11월 25일에 침례를 받았던 네니타는 선교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다섯 번째에 속한다. 그녀는 대학원 시절에 형부가 보낸 선교사들을 처음으로 집에서 만났다. 그

사진 촬영 : 마빈 케이 가드너

왼쪽: 이들과 같은 말일성도들은 비록 여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도 성전에서 봉사함으로써 오는 만족감을 일찍부터 배운다. 아래: 사진에 나온 바야른 장로와 카다이 장로와 같이 필리핀에는 자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 사업을 나오는 회원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녀와 가족 일부의 응답은 즉각적이고도 긍정적이었다. 네니타는 회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마닐라 지역 교회에서 음악 책임자로 곧 부름 받았다. 이후 그녀는 청녀 회장단, 상호부조회 회장단, 초등협회 회장단에서 봉사했다.

루벤 가피즈는 교회에 관심을 갖기 전에 네니타에게 먼저 관심을 가졌었다. 기타를 잘 연주했던 그는 회원들이 각 집을 찾아다니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데 기타 반주자로 뽑혔다. 기타를 쳐주고 돈을 받지 못한데 실망한 그는 거의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있던 중에 네니타가 노래 지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교회에 머물러 있게 되었으며, 결국 선교사 토론을 하게 되어 네니타가 침례 받은 지 1년 후에 침례를 받았다.

2년 후 루벤과 네니타는 필리핀 인 말일성도로서 첫번째 결혼한 부부가 되었다. 지부의 모든 회원이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축하연에도 참여하였다. 가피즈 부부는 축복으로 네 딸을 두었다.

루벤은 교회에서 많은 부름을 받았으며 간증이 계속 성장해 가긴 했지만, 가피즈 자매 보다는 덜 열성적이었다. 그러나 1975년에 "주님께서 루벤의 어깨를 두드려 깨우셨다"고 네니타는 말한다. 루벤이 비인두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몇 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암이 발견 되었을 때 네니타와 루벤의 큰 아이는 겨우 10살이었다. 루벤은 살아서 가족을 부양하기를 갈망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1978년 8월에 에프 브리튼 맥콩키 축복사로부터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도 그 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축복사님은] 저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축복 말미에 그 분의 이 축복을 듣고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으며 아내도 가볍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대는 생을 끝까지 이어서 살아갈 것이며 여러 직책의 역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이 끝난 뒤, [축복사님이]… 제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분에게 암진단을 받았는데 앞으로 2년밖에 못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축복사님이 해주신 축복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벤 비 뱅크스, "나아가 봉사하십시오", 유타 주 프로보의 브리감 영 대학교 영적인 모임에서 한 말씀, 1996년 9월 24일)

그는 축복 받은 뒤로 복음에 더욱 헌신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딴 사람이 되었어요."라고 가피즈 자매는 말한다.

그는 그 이후부터 필리핀의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열심히 활동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감독,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지역 대표 등으로 봉사했다. 또한 주요 토착어인 타갈로그 어로 몰몬경을 번역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봉사했다. 그는 현재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에서 자재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아우구스토 에이와 미르나 지 림

기독교가 크게 번창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게 필리핀은 스페인 사람들을 통해 16세기에 들여온 로마 천주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많다. 필리핀 인의 90 퍼센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회복된 교회의 메시지를 쉽사리 듣고 받아들인다.

아우구스토와 미르나 림은 그러한 부부였다. 1964년 10월에 침례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다.

림 형제는 법과 대학을 졸업한 뒤 1964년까지 직업에서 크게 발전해 나갔다. 그는 조직 사회를 잘 알고 있었고 대중 연설도 능했다. 또한 평생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등, 영적인 탐구를 위한 시간도 가졌다. 그는 개신교를 믿는 부모에게서 자랐으며, 미르나는 천주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랐다.(쉐리안 알 세필드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도 성장하였다.", *처치 뉴스*, 1992년 8월 15일자, 11쪽)

선교사가 그 가정을 방문하기 얼마 전에 세 살난 딸이 왜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처럼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딸의 질문에 감동을 받아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 동안의 일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교회에 목자로서 온 시간을 다해 일하기를 원하시거나, 당신을 위해 다른 어

필리핀 마닐라 성전장인 아우구스토 에이 림 장로와 메이트론인 그의 부인 미르나 림 자매. 림 장로는 성전장에 부름 받은 첫번째 필리핀 사람이다. 그는 또한 필리핀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했다.

떤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바로 알게 해주시옵소서."(아우구스토 에이 림 구술 역사, 1974년, 타자 친 자료, 제임스 모일 구술 역사 프로그램, 솔트레이크시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부 문서 보관소, 17쪽)

일 주일 후에 복음 선교사들이 문을 두드렸다. 아우구스토는 높은 학구열로 인해 선교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는 실제로 선교사들이 저를 방문하기 전부터 믿고 있던 교리와 교회의 교리가 같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계시 같은 것은 내가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에 믿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제가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던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아우구스토 에이 림 구술 역사, 15쪽)

1964년 10월 침례식에서 아우구스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특별한 성약을 마음 속으로 맺었다. "저는 활동적인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습니다." 1주일 후 그는 주일학교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교회에 들어 온 지 일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는 지부 재정 서기, 지방부 보조 서기, 지방부 서기, 퀘존 시의 지부장단 제1보좌 등의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마지막 부름에서 미국 군인인 몬티 켈러의 보좌로 일하면서 2년 간 봉사하였다. 켈러 형제는 그에게 "교회를 운영하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전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아우구스토 에이 림 구술 역사, 18쪽)

림 형제의 철저한 도제 실습 기간은 루존 지방부장단 제2보좌에 부름받았을 때도 계속되었다. 9개월 후인 1967년 8월 22일에 필리핀 선교부가 조직되어 폴 에이치 로즈 형제가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림 형제는 선교부장단의 제1보좌로 부름을 받았고, 그 직책에서 6년 간 봉사하였다. 그는 또한 네 지부의 지부장으로 각각 봉사하였으며, 로즈 선교부장의 후임인 드윗트 시 스미스 선교부장은 림 형제에게 신임 선교사의 훈련자로 자주 부름을 주었다.

필리핀에 처음으로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을 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는 아우구스토 에이 림

형제를 스테이크 부장으로 불렀다. 필리핀 마닐라 스테이크는 1973년 5월 20일에 조직되었는데, 마닐라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된 지 12년만이었고, 림 형제가 교회에 가입한 지 불과 9년만이었다. 림 부장은 두 번이나 새로 조직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다.

그 다음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 림 부장은 지역 대표와 필리핀 나가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선교부장에서 해임되기 몇 주 전인, 1992년 6월 초, 림 부장은 칠십인 제2정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는 첫번째 필리핀 사람이 된 것이다. 그의 부름은 가히 개척자적인 부름이었다. 그는 이후에 사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현재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서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다.

1996년 여름, 림 장로와 자매는 필리핀 마닐라 성전장과 메이트론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마닐라 성전에서 성전 사업을 인도하는 첫번째 필리핀 부부이다.

그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봉사는 많은 귀감이 되었으며, 특히 그들의 여덟 자녀에게는 더하였다. 그들의 아들들은 선교사로 봉사하였고 딸들은 귀환 선교사와 성전에서 결혼하였다.

레무스 지 빌라르트와 이본느 엘 빌라르트

필리핀 인에게 있어서 1972년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정치적 부패는 만연되어 있었고 경제는 공황에 빠져 있었다. 레무스 빌라르트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반정부 집회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친한 친구인 이본느 엘 카윗은 간호사로서 거리에서 데모 도중에 부상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었다.

1972년 9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그의 정부는 레무스와 이본느와 같은 항의자들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였다. 정부는 최우선 검거 대상자의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그 지역 명단의 두 번째에 레무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이본느의 이름도 명단에 들어 있었다.

레무스와 이본느는 장래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레무스는 이본느가 군에 투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으며, 이본느의 아버지도 딸에게 당국에 자수하라고 종용하였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사흘 후 이본느는 자수하였고, 레무스는 게릴라 전사가 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었으나 부친과 정부 당국에 영향력이 있는 친척들의 권유로 그 역시 자수하였다. 그는 3개월 여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가족들이 이본느와 결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주선하였는데, 가족과 군부는 이들이 결혼하면 레무스가 산으로 들어가 반정부 투쟁 하는 일을 단념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판단은 옳았다. 석방된 지 열흘 후인 1973년 1월 21일, 레무스와 이본느는 결혼하였다. 레무스는 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내인 이본느와 함께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정부에 투쟁하였다.

처음 생활은 어려웠다. 특히 직업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

오른쪽: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레무스 지 빌라르트 장로와 그의 부인인 이본느. 빌라르트 장로는 침례 결심을 하기 전에 장로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먼저 실천했다.

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고향에서—이본느는 카디즈에서, 레무스는 65 킬로미터나 떨어진 바콜로드에서 직장을 구했다. 카디즈에 있는 이본느의 친정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복음 선교사들을 만났다. 복음으로 인해 이 집안 사람 모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본느의 아버지인 카멜리노 카윗은 종교심이 두터운 사람으로 장로들의 이야기를 즐겨 들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와 그의 부인, 그리고 두 딸이 침례의 물에 들어갔다. 카윗 형제는 카디즈 지부의 지부장이 되었고, 후에는 감독, 스테이크 부장, 축복사가 되었다.

레무스와 이본느도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레무스는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다. 레무스는 몰몬경을 읽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 접견 때까지도 침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또 침례 결심을 하기 전에 장로들이 가르쳐 준 대로 실천하고 싶어 했다. 몇 년 후에 그는 이렇게 술회했다. "저는 일단 어떤 조직에 가입하면 그 조직의 일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바치며 금식하고 선교사 기금을 바치며 몰몬경을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써 얼마 후 스스로 교리를 알게 되었다.(요한복음 7:17 참조) 그와 이본느는 1975년 5월에 침례 받았다.

3개월 후 케손 시 아라네타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필리핀 지역 대회가 열렸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말씀하게 되어 있었는데, 레무스는 그 분을 뵈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대회가 끝나자 마자 저는 바콜로드로 돌아갔습니다. 곧장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의 말씀을 따라야 하오.' 그녀는 '아니, 예언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영원한 것이니,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레무스는 그 주 내내 카디즈에 머물러 있다가 주말에 바콜로드로 돌아갔다. 킴볼 대관장의 말씀에 따라 이본느는 카디즈에 있던 직장을 그만 두었고 남편과 함께 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바콜로드로 이사했다. 빌라르트 가의 가족들은 복음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됨에 따라 여러 지도자 직책에 부름을 받았다. 1981년, 칠십인 정원회의 메리온 디 행스 장로에 의해 바콜로드에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을 때 빌라르트 형제는 초대 스테이크 부장으로 지지 받았다. 1987년까지 그 직에서 봉사하였으며, 세부로 이사한 뒤에는 교회의 지역 부동산 관리자가 되었다.

그 후 빌라르트 형제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지역 대표로 봉사하였으며, 민다나오 섬의 필리핀 카가양 드 오로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부름 받았다. 그와 빌라르트 자매는 1995년 6월에 해임될 때까지 민다나오에 있다가, 며칠 후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았다.

레무스와 이본느는 일단 대의를 발견하기만 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했으며, 아울러 계명을 지키고 교회 대관장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들의 복음에 대한 헌신은 결코 시들지 않았다.

개척자 정신

앞의 몇 가지 이야기는 수 많은 필리핀인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보낸 많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며, 필리핀 회원들에게 흔한 수 많은 친절과 사랑의 행위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 이야기들은 필리핀 전역에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힘과 겸손을 보여 주는 몇 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1,000개 이상의 와드와 지부가 그 도서 국가 도처에 존재하며, 개척자 정신이 진정 살아 있어 많은 필리핀인이 계속 교회에 가입하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구습을 타파하고 복음의 완전한 빛으로 밝게 타오르는 새 시대로 옮겨 가면서 끊임없이 가족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고 있다. □

용감 공주와요 그냥 이용하기 '보이바르 시귀 : 림그

(2013, 김용진, '용 이야기와 그림 그리기'를 위해 그린 삽화 같아.)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 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리스도의 동반자요 동료인 미가엘이 창조의 많은 부분을 주관하였다. "인간 아담", 14쪽 참조

4 15989 82320 3